



SPRING

# WONIKIN

WONIK GROUP MAGAZINE  
2019 VOL. 58

자유 - 주도성°  
스스로의 변화

# WONIK bldg. 9F

The color \_ YB #.1

1200x1680, 2018, Pigment

Minbeom Kim



The 7th Gallery

명작예찬

**Kim  
Min  
beom**



*The color 'notes'*

The color 시리즈는 작가의 첫 색면화 작업이다.

형체가 분리되고 빛의 형태와 색만 남아 작가가 바라본 세계와 감정을 작품으로 관객과 대면한다. 기존의 색면화 작업 방식과 달리 작가는 사진이란 매체를 변형시켜 작업한다.

흑경을 통한 'Installation' 방식으로 사진 작업을 진행한뒤, 후 가공을 통하여 이미지와 픽셀을 해체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한다. 이는 기존 사진예술에 기술적 탈피이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강제로 해체시켜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물며, 아름다움은 단순히 고결한 것만이 아닌, 파괴되는 혹은 반 미학적인 예술의 경계를 픽셀의 파괴로 작가는 증명한다.

©thememe



*Group Exhibition*

2018. 12 Adoremansion project-Adoremansion

2017. 07 Purpose of not purpose-Karas Gallery

2017. 05 Adoremansion project-Adoremansion

2015. 08 Dali International Photography Exhibition-China

*Solo Exhibition*

2017. 03 Sensation os area of sensation-Ground. Va Gallery

2015. 12 Add-Grigo Gallery

*The color 'message'*

시간이 지나 모든 것들은 충돌되어 터져버렸다.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그 모든 것들은 침묵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느낄 수 없는 시간들이다. '공포'였다.

얼마 후, 붉음이 어둠 사이로 터져 흐른다.

그리고 이내 만물은 색을 입는다.

모든 것들이 어지러웠다.

수 많은 정보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경외하라.

새로운 우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살아가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라.

거대한 혼란은 나 이전에 존재자였다.

그것은 태초였고 이어 어둠이 드리운다.

무질서한 개념들이 형체화 되고 중계자가 나타난다.

그 중계자는 우리가 아니다.

균형 속 만물들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충돌된다.

이어 모든 것이 터져 흘러버렸고 면 옛날 주인 혼돈이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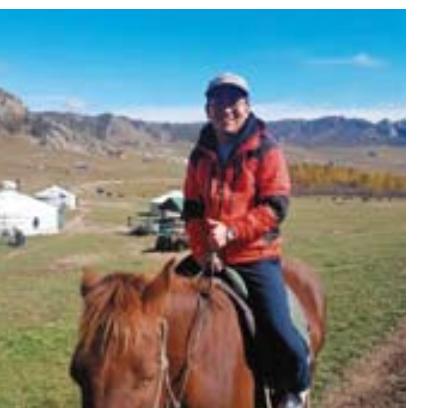
검어질때 쯤, 만물이 색을 잃어 태만 남았을 때 틈 사이로 붉음이 뿜어져 나왔다.

그렇게 붉음이 혼돈을 집어 삼킬때 우리는 중계자가 된다.

원의판교시9층전시실

**WONIKIN**  
v.58  
2019 spring

자유 - 주도성  
BY MYSELF



**6** Special Theme  
주체적인 결정과 행동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  
최호성 프로골퍼

**20** 원익월드  
안나푸르나와 대자연  
원익큐브 박정식 대리

**10** 똑똑한 반도체  
편리한 일상을 디자인하라  
열전반도체

**26** Boss vs Leader  
성공 확신을 일으키는 솔선수범  
원익머트리얼즈 장빈 부장

**14** 공감라운지  
Book. 어디서 살 것인가  
(주)원익 최희영 전무

**34** 슬기로운 직장생활  
뒷담화하는 직장동료때문에  
화가 치밀어요

**18** 원익인 통계청  
숫자로 보는 원익인

**38** WONIK HERO 2019  
그랑프리  
원익아이피에스 나민권 상무 외 41명



기술개발 우수상  
원익아이피에스 나경필 부장 외 5명

**46** Great Global Company  
'식품'으로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보다- 네슬레

## 사보기자단

원익홀딩스 소병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최예란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원익큐멘시 이민희  
원익 이기복  
원익큐브 정은하  
씨엠에스랩 박지현  
위닉스 안희태  
원익로보틱스 정희정  
원익엘엔디 최세현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목

## 사보담당자

이효철 / 강무성 / 이효상

## 서재원

## 통권 제 58호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50** The Way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최고가 됩시다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



**54**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홀딩스 김국선 부장 & 오준 사원

**66** 특별한 덕후님  
봄날의 꽃덕후와 함께  
원데이플라워클래스  
씨엠에스랩 김태영 대리  
박기현 과장 & 류현희 과장

**56** 그뤠잇팀  
벽을 허물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원익로보틱스 신사업팀



**72** 행복일터  
자유 주도성 : 스스로 변화하라

**76** 원익은 지금❶ 원익머트리얼즈  
투명경영이 열매를 거둔 날

**94**

원익은 지금❷ 원익아이피에스  
기업 가치에 '청렴'을 더하다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

**98** 원익은 지금❸ 원익아이피에스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명강사  
원익아이피에스 김구종 과장

**100** 기업문화 포토툰  
근무혁신 프로젝트 - 유연한 근무



**102** 원익은 지금❹  
Google 시스템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106** NEWS FOCUS  
원익은 지금❺

**120** THANKS FOR U  
READER'S LETTER

theme.

## 자유 - 스스로의 의지

BY MYSELF

새로운 하루를 여는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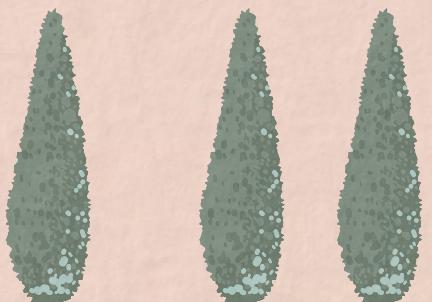
바쁜 길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설렘과 기대의 감정.



# 삶은 선택의 연속,



## 주체적인 행동은 결정과를 우리에게 한다

흔히 말하는 '정석'과는 거리가 면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듯,  
최호성 선수의 골프 인생도 그가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갔기에  
더욱 박수받을 만한 것 아닐까.

기본적인 피니시 동작과는 거리가 멀어도, 심지어 다리를 들고  
한 바퀴 돌기까지 해도 무언가.

세상 어느 누가 '완벽한 단 하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  
최호성 선수는 그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또 하나의 길을 개척했을 뿐이다.

## 어떤 아픔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열등감 속에  
밀어 넣지 않는다.

최호성 프로골퍼를 보고 있노라면 꼭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큰 나무 한 그루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다부진 체격과 뚝심이 느껴지는 표정의 얼굴. 대부분의 운동선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상 같지만, 골프선수로서 오른손에 치명적인 핸디캡을 지닌 그에게는 유난히도 침착함이 전해졌다. 그의 활약이 더욱 끽하게 기록되고 있는 데에는 바로 청년 시절에 겪은 사고 때문이리라. 최호성 선수는 담담하게 그 시절을 회상했다.

“고등학교 시절, 현장실습을 나간 곳에서 냉동참치를 손질하다 그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도 못하고, 갈피를 잃은 채로 20대를 보냈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 배달, 자판기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20대 중반 무렵,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조건으로 시작한 골프장 아르바이트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시발점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현관에서 골프백을 나르고 라커 청소를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골프라는 스포츠에 매료되었을까. 문득 독학으로라도 골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 관련 잡지를 정독하고, 손님들의 어깨너머로 필드를 엿보면서 기본자세와 스윙을 배웠다는

최호성 프로골퍼는 ‘별명 부자’다. 외골수, 잡초, 늦깎이…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을 곱씹다 보면 지난 삶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때문일까, 오늘날 그가 거머쥔 쾌거는 골프 선수로서 갖는 공식적인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 듯하다. 불혹을 넘긴 나이임에도 작년 12월 일본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2월, 미국프로골프인 PGA 투어에 초청선수로 진출한 최호성 프로. 젊은 날 동분서주했던 발자국을 뒤로한 채, 이제는 삶을 향해 내딛는 그의 묵직한 걸음걸음을 따라가 보았다.



© KPGA

그의 이야기가 꼭 역경에 처하고야 마는 영웅들의 서사처럼 들렸다. 눈썰미가 좋았던 덕분에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었단다. 넓은 연습장에서 외로이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갔을 젊은 그를 상상하니 오늘의 만남이 더욱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업사원으로 특채 되어 ‘직원 골프 교육프로그램’으로 첫 골프채를 잡게 되었죠. 당시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골프를 알아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계약직 직원으로 골프를 배우게 됐고, 그로부터 다시 1년 후, 1999년 4월에 세미프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해 여름 한국프로골프(KPGA) 2부 투어에 데뷔할 수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풋내기 선수였기 때문에 골프장 일을 병행하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휴가를 내면서 참가했죠(웃음).”

그는 이어서 말했다. “왼손보다 한 뼘 정도 짧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겨울이면 뼈가 시리고 보습에 조금만 소홀해도 피가 터지기 일쑤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도전 배경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열등감 속에 남겨두지 않고 진보의 동력으로 삼았던 지난 날이 숨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언제나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누구나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만,  
결코 목표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자꾸만 어긋나는 목표를 들여다보며  
방향을 점검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기꺼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만의 삶을 써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도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역행할 수는 없었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하기 마련이고, 늦깎이 선수인 만큼 남다른 경쟁력이 없다면 필드에서 살아남기 힘들 터. 이에 최호성 프로의 선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낚시 스윙’ 자세다.

“저만의 강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더욱 다양한 자세와 스타일로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회전력이 강한 자세로 공을 칠 경우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회 출전과 연습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큰 스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만의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낚시 스윙’이라는 유쾌한 평을 받게 되었네요(웃음).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분명 좋은 성과를 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정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 밖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듯, 최호성 선수의 골프 인생도 그가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갔기에 더욱 박수받을 만한 것 아닐까. 기본적인 피니시 동작과는 거리가 멀어도, 심지어 다리를 들고 한 바퀴 돌기까지 해도 뭐 어떤가. 세상 어느 누가 ‘완벽한 단하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 최호성 선수는 그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또 하나의 길을 개척했을 뿐이다.

“초청선수 자격으로 미국 무대에 진출했을 때 제 포부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사실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팔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낯선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제 경기를 보며 즐거워해 주신 데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올해로 마흔일곱인 최호성 선수.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은퇴 계획을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의 대회 입지는 점차 줄어들지 몰라도 일본 진출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선수 인생 제2막을 스스로 연 그의 내일에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WONIK**





글 김준래 과학칼럼니스트

뜨겁다가 차갑다가

## 편리한 일상을 디자인하라 열전반도체

### 펠티어 효과와 제벡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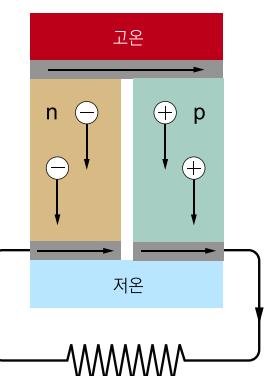
이용에서 시작됐다

자칭 컵라면 매니아인 원익인(32) 씨는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생활이 참 편리해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한다. 냉온 정수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일일이 물을 끓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원씨는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 냉온 정수기의 원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정수기 안에서 별도로 물을 데우지 않는데도,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니 한편으로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냉온 정수기가 빠르게 찬물과 더운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수기 안에 내장된 ‘열전(熱傳) 반도체’ 덕분이다. ‘열전’이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들거나, 반대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전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두 개의 물리적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바로 ‘펠티어 효과(peltier effect)’와 ‘제벡 효과(seebeck effect)’이다.

우선 펠티어 효과는 성질이 서로 다른 물체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한쪽은 열을 발생하여 뜨거워지고, 다른 한쪽은 열을 흡수하여 차가워지면서 온도 차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에 제벡 효과는 서로 다른 물체에 온도의 차이를 주는 것이다. 한 쪽은 뜨겁게 만들고 다른 쪽을 차갑게 만들면 전위차, 즉 전압이 생기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열전 반도체는 이와 같이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반도체인 만큼, 펠티어 효과와 제벡 효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다.

가령 물을 냉각시키거나 가열하고 싶을 때, 열전 반도체에 전기만 공급하면 된다. 한쪽은 차갑게 되고, 다른 한쪽은 뜨겁게 되기 때문에 즉시 찬물과 더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앞에서 언급됐던 냉온 정수기는 바로 열전 반도체의 펠티어 효과를 응용한 제품이다. 반대로 전기가 필요할 때는 열전 반도체에 열을 가하면 된다. 한쪽에 열을 가하면 온도차가 생기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과거처럼 물을 끓인 뒤,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를 만드는 등의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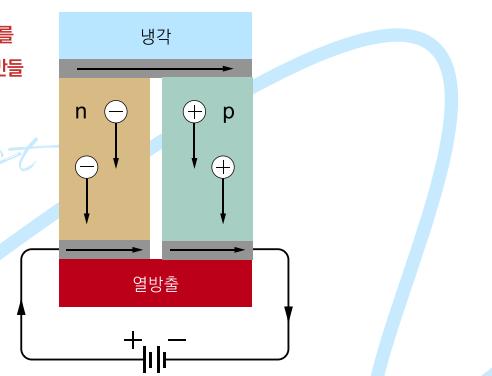


펠티어 효과는 이와는 반대로 양쪽에 전위 차를 걸어 주면 열이 흘러서 양쪽 끝에 온도 차를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Peltier effect*

제벡 효과는 어떤 물체의 양쪽 끝에 온도 차를 주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 즉, 온도 차에 의해 열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다.

*Seebeck effect*



# Thermoelectric



냉온 정수기처럼 열전 반도체의 제작 효과를 응용한 제품도 있다. 바로 충전이 필요 없는 시계다. 지난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8'에서는 '파워워치(Power Watch)'라는 이름의 스마트워치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시계 모양은 여느 스마트워치와 다를 게 없었지만, 이 제품이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전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다. 비결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것으로서 피부와 시계 사이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든 뒤, 시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매일 운동량을 기록해주는 스마트워치의 최대 단점은 자주 충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1~2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 방전 속도가 빨라져서 반나절만에 다시 충전해야 한다. 따라서 파워워치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꿈의 스마트워치로 인정받고 있다.

열전반도체 기술을 적용하여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저소음 냉장고

## — 적용 범위 확대 —

열전 현상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로는 정수기와 시계 외에도 냉장고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소음 없는 침실용 냉장고'가 바로 그것. 이 냉장고는 국내 가전업체인 LG전자가 열전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든 신개념 냉장고다. 기존 컴프레서 방식의 소형 냉장고 소음이 29데시벨(dB)이라면, 열전 반도체 냉장고의 경우 소음을 최대 19데시벨까지 낮출 수 있다. 기존 냉장고는 모터로 펌프를駆동하여 냉매를 압축한 뒤, 액체로 된 냉매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는 원리로 작동된다. 그러나 보니 작동과정에서 모터의 진동으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다. 반면에 열전 반도체를 사용하면 크기가 대폭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소음까지 줄일 수 있다.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나는 미세한 소음보다도 조용하기 때문에 침실 내 냉장고나 호텔 객실에 마련된 미니바의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소개했다. 열전의 원리가 냉장고에 적용된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열전 반도체가 탑재된 냉장고들이 출시된 적이 있다.

(주)빌텍이라는 중소기업은 김치냉장고에 처음 열전 반도체를 적용한 제품을 1993년에 선보였고, (주)창진정보는 지난 2005년에 열전반도체를 탑재한 사계절 다목적 냉·온장고를 출시하여 한동안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제품의 판매 기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우선 동종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전력을 많이 소모해서 절전이 미덕이었던 당시로서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의 두뇌 격인 시스템 반도체와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 새로운 반도체의 활약을 기대하다.

한편, 열전 반도체 기술은 통신 분야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통신 부품은 일정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파장 변화나 출력 감소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 효율이 저하된다. 그러나 열전 반도체를 적용하면, 광통신 부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열전 반도체를 자동차 및 선박 등에 적용할 경우, 운행 중에 발생되어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폐열 재활용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길은 멀다. 열전 반도체 방식 냉장고의 경우 국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으로 아직 5등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도체 소재부터 시작하여 모듈 패키징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진정한 상용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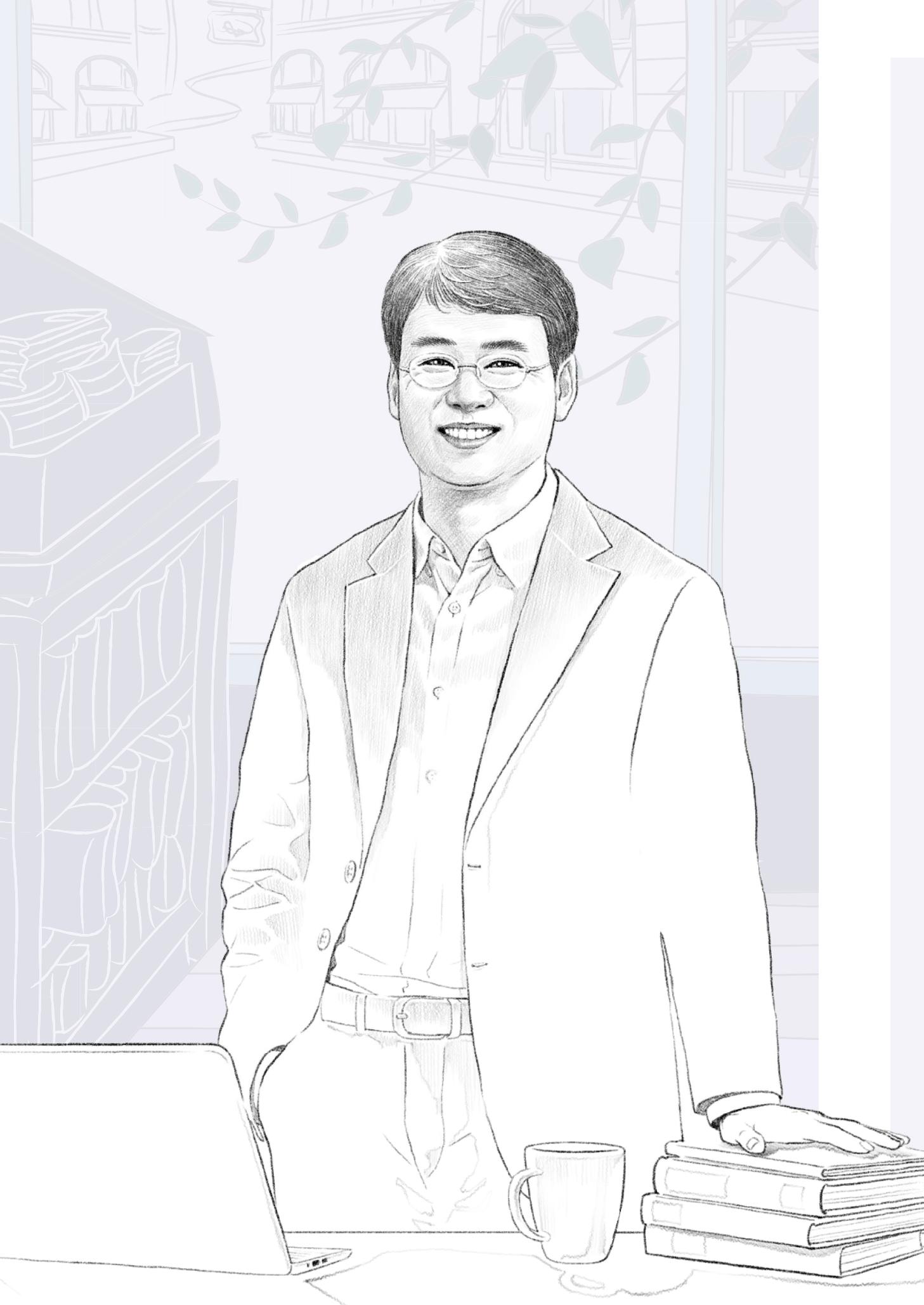
# 어디서 살 것인가

WONIKIN v.58 — BY MYSELF

유현준 지음

recommend  
최화영  
전무  
(주)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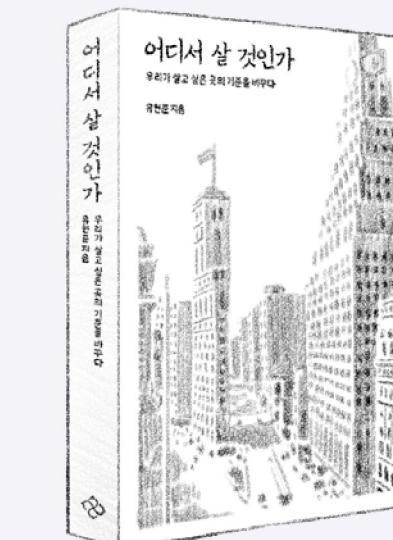
BOOK



## 과연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일까?

건축과 사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영향을 준다. 건축의 발달은 다양한 사람들을 도시로 모아게 함으로써 생각의 교류가 많아지고, 그러한 시너지 효과로 혁신적인 발명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서울은 소통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폐쇄적인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뿐이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는 SNS에서의 교류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느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가진 다른 생각의 다양성을 죽이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건축과 자연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찰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글. (주)원익 최화영전무



# 어디서 살 것인가



BY MYSELF

—

—

WONKIN v.5.8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다양성입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존재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현준

우리가 사는 도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우리의 ‘생활’과 ‘건축’과 ‘도시’를 종횡무진하는 독특한 시각과 통찰

건축가 유현준의 통찰은 자유로운 공간을 닮았다.『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흥준이 “그의 이야기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고, 첨단 과학과 전통이 맞물려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는 다채로운 시공간을 넘나들며 우리 모습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우리는 저자가 이끄는 대로 고대 종교 건축물의 효시인 괴베클리 테페의 이야기를 읽다가 어느새 현대 한국의 도시로 이동하고 다시 SNS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눈 깜짝할 새 또 우리 집 앞 골목길로 돌아와 있다. 건축물을 둘러보듯이 책의 구석구석을 유영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올 것이다. “과연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일까?” 이 책을 통해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다. — WONKIN

제대로 설계된 공간은 갈등을  
줄이고 그 안의 사람들을 더 화목하게  
하고, 건물 안의 사람과 건물 주변의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더 화목하게 한다.  
좋은 건축이란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다.

책 속에서

우리의 학교 건물은 보통 한 사람 몸 크기의 580배 정도 된다. 이런 건물은 너무 커서 우리 아이들이 정을 붙이기 어렵다. 이런 건물은 일종의 ‘시설’로 느껴진다. 대부분의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 41 p

1인 주거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더 행복해지려면 도시 전체를 내 집처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촘촘하게 분포된 매력적인 ‘공짜’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 건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 96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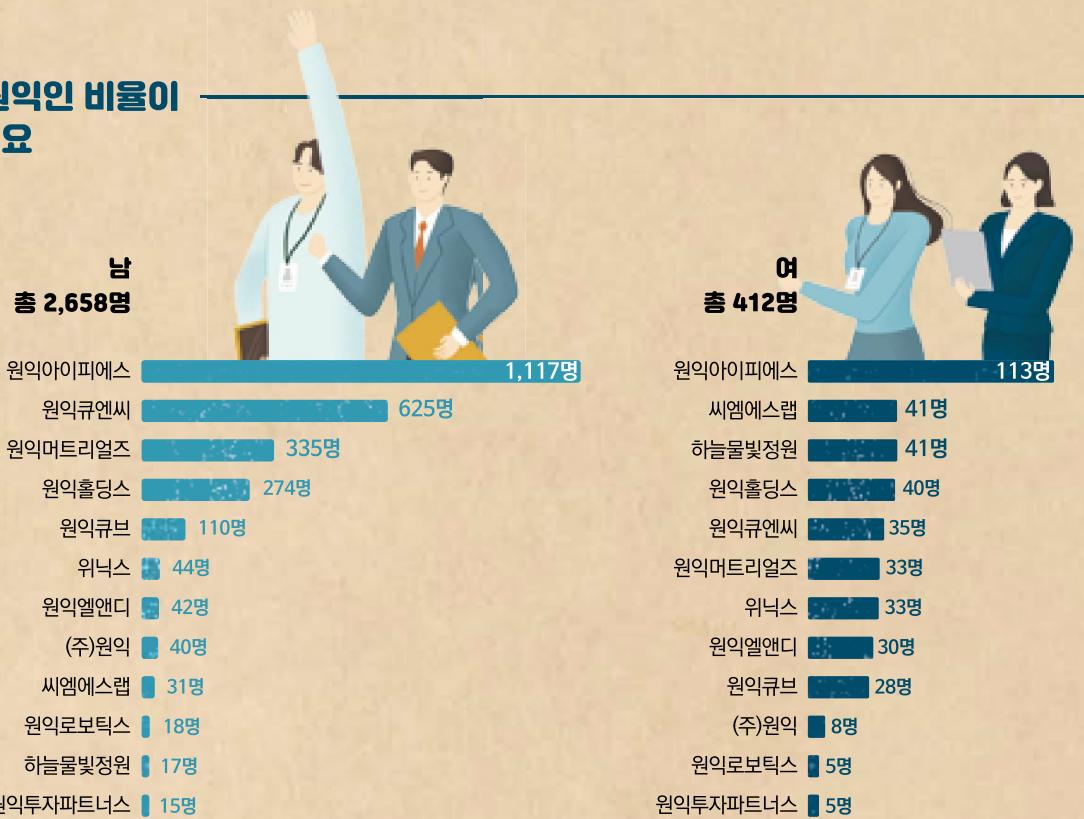


저자 소개

홍익대학교건축대학 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미국 건축사.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였다.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및 MIT 교환 교수(2010)로 있었다. 그는 2017년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독일 디자인 어워드, 아시아건축가협회 건축상, 아시아 시티스케이프 어워드, 서울시 건축상, 2013 올해의 건축 BEST 7, 2013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CNN이 선정한 15 SEOUL'S ARCHITECTURAL WONDERS, 2010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2009 젊은건축가상 등 30여 차례의 각종 국제 및 국내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2015년 ‘작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 최종 4권의 후보에 들기도 하였다. 그 외 주요 저서로 <현대건축의 흐름>, <52 9 12>, 2008 문화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모더니즘: 동서양문화의 하이브리드>가 있다.

# 지극히 소소한 숫자로 보는 원익인

## 남녀 원익인 비율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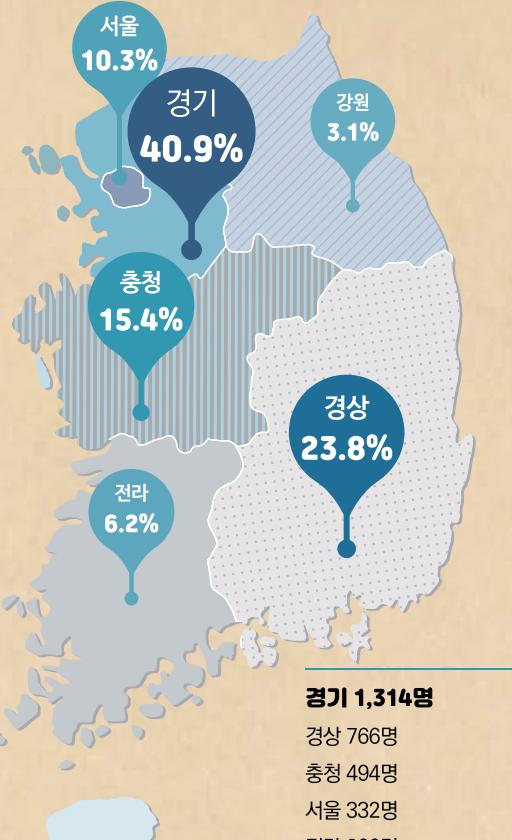


## 세대간 원익인을 알아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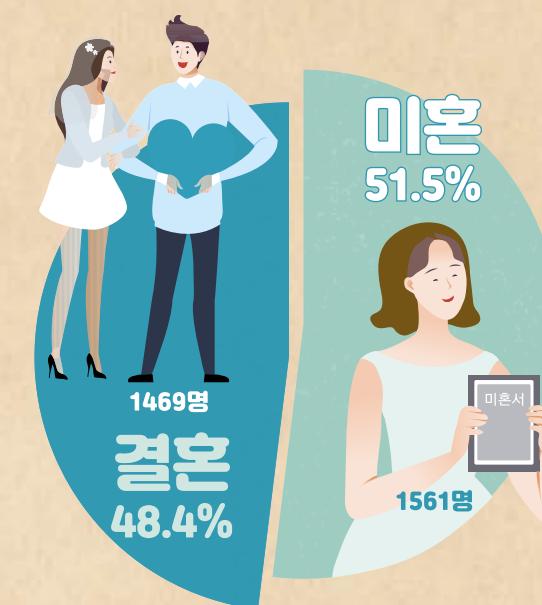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1위 - 37% 원익큐엔씨	1위 - 60% 씨엠에스랩	1위 - 37% 원익로보틱스	1위 - 38% 하늘물빛정원	1위 - 33% 하늘물빛정원
2위 - 36% 원익엘앤디	2위 - 52% (주)원익	2위 - 36% (주)원익	2위 - 29% 원익투자파트너스	2위 - 8% 원익엘앤디
3위 - 34% 원익머트리얼즈	2위 - 52% 원익큐브	3위 - 34% 위닉스	3위 - 16% 위닉스	3위 - 5% 원익투자파트너스
...	...	...	...	...
11위 - 10% (주)원익	11위 - 22% 원익엘앤디	11위 - 12% 원익머트리얼즈	11위 - 3% 원익아이피에스	10위 - 0% 원익큐브
12위 - 3% 원익머트리얼즈	12위 - 12% 하늘물빛정원	12위 - 11% 씨엠에스랩	11위 - 3% 씨엠에스랩	10위 - 0% 씨엠에스랩

소소하고도 지극히 일반적인 하루를 만들어가는 직장동료, 오늘의 행복을 함께 하는 이들의 빅데이터를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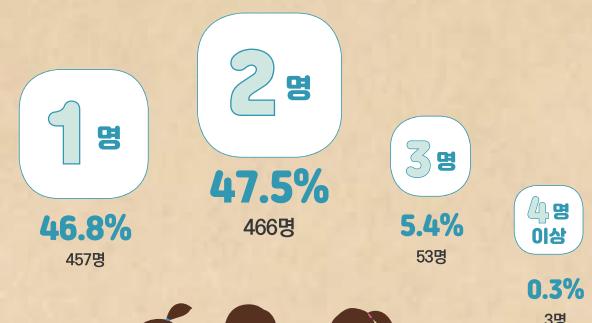
## 원익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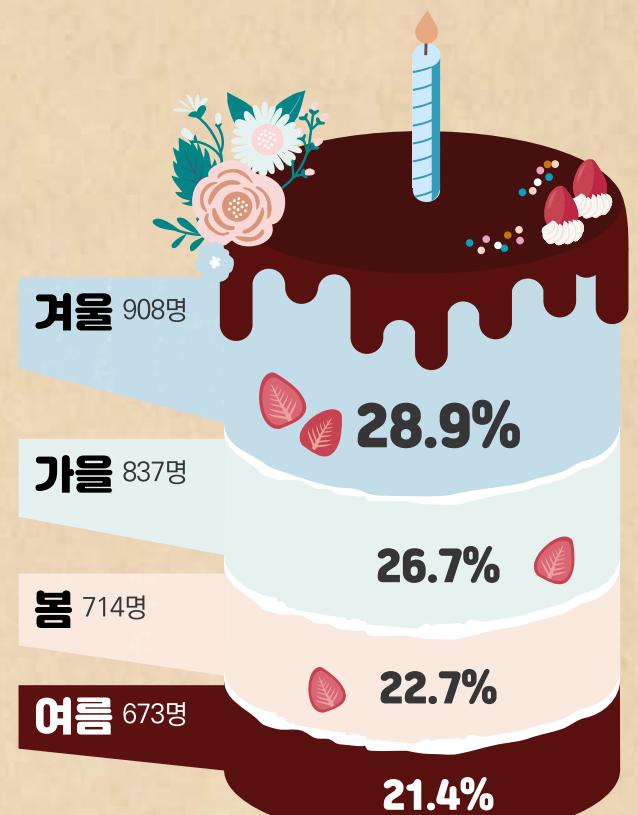
## 결혼과 미혼 중 어떤 편이 높을까요?



## 몇명의 자녀를 두고 계신가요?



## 원익인이 태어난 계절은?





# NEPAL

## Annapurna

BY MYSELF  
—  
WONIKIN v.5.8



네팔 11박 12일 동안 안나푸르나 ABC(4,130m),  
몽골 6박 7일의 대자연.

대담한 여정이 내 앞에 펼쳐진다.

## MONGOLIA

## Ger



농담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나에게 죽을때까지 말할 수 있는 사골과 같은 추억거리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삶의 소중함과 홀로 여행을 다님으로써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 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고, 그것은 해외에서 나의 자부심과 같았다. [WONIK](#)

# 안나푸르나와 대자연



원익큐브 수지사업부

박정식 매김

2018. 9

원익 그룹에는 원익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지원을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자유롭게 떠나보는 기회를 경험한다.

## 나홀로 여행과 도전의 한계

어차피 내려 올 등산에 대한 흥미는 0에 가까웠지만, 결혼 후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등산. 이제는 만만해진 관악산과 마일스톤이 되어버린 민동산, 월악산 등 최고 높은 한라산까지! 이번 기회로 생애 첫 나홀로 여행과 도전의 한계라는 과제를 주어 성취감과 스토리를 얻게 하고, 앞으로의 자신에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되고 싶어 도전 하였다.



## 일반 등산가들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장소

네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장비를 렌트하고 오프로드 2시간을 지나 시와이 도착. 나의 트레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짐은 약 28kg. 안전상 문제와 여유로운 트레킹을 위해 2명을 고용하여 짐을 분배하고 나는 6~10kg 정도의 짐을 들었다. 2시부터 시작한 트레킹은 굽어지는 빗줄기 때문에 7시 즈음 뉴브릿지에 도착하여 종료 하였다. 하하. 거머리에게 6번의 헌혈을 했다.



## 근성과 오기

시누와(2,340m)는 5시 반 정도에 도착하여 첫 날 폭우로 인한 밀린 스케줄을 근성과 오기로 모두 소화했지만 이때부터 후회가 밀려왔다. 식욕도 떨어지고, 속된 말로 입질이 오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전날부터 비아그라와 고산병 약을 먹었지만, 히말라야 도착 후 손 저림 현상은 찾아왔다. ABC(Annapurna Base Camp, 4,130m) 도착하여 만감이 교차하여 깃발 들고 사진을 남겼다.



## 아무나 경험하지 못할 스토리

하산 할 때 물이 많이 불어나 다리도 유실되고 바위에서 미끄러져 사진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으며 등반 6일동안 <160,579 걸음, 일 평균 26,763 거리 117.92km, 일평균 19.65km> 하산 후 체중 감소 4.2kg 이었다.



## 대자연과 게르 체험

안나푸르나 하산 후 첫 날과 이튿날은 휴식에 전념하고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겼다. 네팔은 1인당 GDP \$700.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민국이지만, 행복지수 1위(17년 기준) 다. 의외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행복지수 1위 국가답게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다.



몽골로 넘어가 나머지 일정을 대자연과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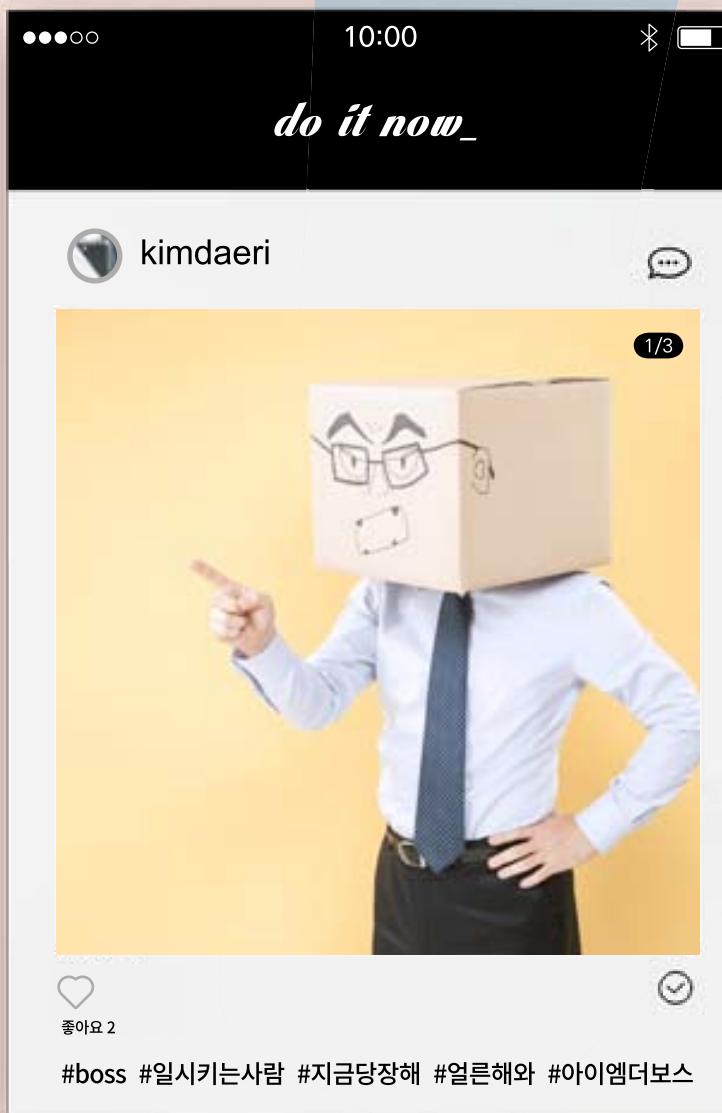
section I.

# 대범 하 게

BY MYSELF

새롭다는 것은 무언가를  
자유롭게 구상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당신,  
그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Boss**



**Leader**

리더는 팀원으로 하여금 성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습관과 행동은 복리 계산처럼 시간과 노력을 지속하면 차이가 증폭된다.  
이렇게 성공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그 자신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이는 사람, 그가 바로 리더다.

### 부장 장빈

원익머트리얼즈 해외영업팀

# CHANG BIN



## 성공 확신을 일으키는 솔선수범의 힘

박소명 대리는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출장과 상담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2016년 입사해 3년이 조금 지난 지금, 아직은 중대한 해외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기란 어려울 법도 하지만 작년 여름에 대만 출장을 다녀온 이후로 부쩍 자신감이 붙었다. 사실 그전에는 혼자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는 것은 언감생심, 뜻밖의 일이었다. 중국의 서안 법인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제품 상담을 처음 요청한 업체를 단독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 일을 어찌지?’ 고민과 망설임으로 가득한 그의 표정을 읽었는지, 장빈 부장이 그를 볼 러 가만히 말했다.

“내가 몇 가지 일러둘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장 부장은 혼자서 상담 미팅을 다녀오는 일에 지장 없도록, 안건 준비뿐만 아니라 도시 간 이동과 숙박까지 알아서 조율하고 준비할 수 있게 꼼꼼히 살펴봐 줬다. 박 대리는 장 부장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만반의 출장 준비를 마치고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출장기간 중에는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일정이 연착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장 부장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격려와 응원에 힘입은 결과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어요. 제 경험치를 쌓는 유무형의 성과도 얻었답니다.”

팀원들은 장빈 부장을 ‘성취에 대한 자극을 주는 훌륭한 모델’이자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라 말한다. “자기 입장에서 지시만 하는 보스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원들이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원들 각자의 수준이나 성향에 맞게 일을 제시해주고 본인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자극을 받으며 조직도 일취월장할 수 있었죠.”

6년 전 장 부장이 오창 본사로 출근하던 날 해외영업 담당자는 단 1명뿐. 그러나 지금은 6명으로 늘었다. 사세가 커진 만큼 원익마트리얼즈 해외영업팀도 커진 것. 팀원들이 함박웃음을 짓는 일이 많아진 이유다.



성취에 대한 자극을 주는 훌륭한 모델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



## 동기 부여를 통해 한뼘 더 성장하는 팀원들

해외영업팀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차이나’, ‘세미콘 타이완’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여러 참관객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장 부장은 부스를 찾은 사람들을 일일이 맞으며 팀원들을 소개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법이지.” 그 덕에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된 팀원들은 현지 바이어를 만나 대화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박소명 대리는 이때를 돌아보면서 “부장님은 팀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미래를 위한 각자의 길을 잘 닦을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란 걸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구성원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시하고 감독하는 유형의 상사가 있고, 각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믿고 맡기는 상사가 있다. 전자의 경우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조직의 협력과 응원, 인내의 힘으로 차츰 결과를 만들어낸다. “팀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찾아 하게끔 만들어 주는 분, 항상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장빈 부장입니다.” 팀원들의 아낌없는 칭찬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의 리더 장빈 부장이다.



팀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각자의 길을 잘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리더



원익머트리얼즈 해외영업팀의 장빈 부장입니다. 벌써 8년 차가 됐네요. 지금은 해외영업팀이 판교 사옥에서 근무하지만, 제가 입사한 2013년 6월에는 전 직원들이 오창·전의에 있었어요. 당시 전 직원이 100여 명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네 배가 됐죠,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제 첫 사회생활은 1998년 12월에 시작됐어요. 해외사업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메일이나 전자결재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라 팩스나 전화로 해외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사원이 하는 일 중에는 매일 퇴근 무렵 그날 수신·발신된 팩스를 정리하고 결재판에 도장을 찍어 다음날 아침 상사에게 제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아무리 외국어에 능숙하더라도 비즈니스 용어, 업계 전문 용어 등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아 사수들에게 혼도 많이 났죠. 특히 제 팀장님은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부르시고는 철자 하나하나, 영문법까지 바로잡아주시는데 거의 <성문종합영어> 강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괴롭고 짜증이 나고, ‘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시는 건가?’ 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반항도 할까 싶었지만, 감히 그려진 못했어요.

특이한 것은 팀장님 월, “장빈 씨는 중국어 스페인이니, 중국 지역 말고 기타 지역을 맡아 일을 해보세요”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는 “왜? 왜? 왜? 왜? 왜? 왜?” 모르면 이해할 때까지 질문해라, 모든 현상엔 이유가 있으니 ‘왜’라는 질문을 적어도 7번은 나 자신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도 중국어 스페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고, 저는 해외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해외 프레젠테이션, 전시회 대표 연설, 회사 내 주요 고객사 담당 등 중요한 업무들을 맡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후 제가 꿈꾸던 소위 007가방을 들고 비행기로 해외를 왔다갔다하는 인터네셔널 세일즈맨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당시 저를 이끌어준 팀장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요즘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황금기를 벗어나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회로 삼아 전 해외영업팀원들과 함께 우리 회사를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중국 서안 공장은 당사 중국 비즈니스의 교두보 역할과 향후 중국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전초기지입니다.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품력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임을 입증할 겁니다.

**WONIK**



내가 꿈꾸던 리더를  
만났습니까?  
오늘의 나는,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조직이 커가면서 신경 쓸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매출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원들 모두 같이 힘내면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5년 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해외영업팀 박소명 대리

“위대한 리더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망만이 있을 뿐이다.”

“리더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자신이다.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 열정적인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제보다 한 번 더 도전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리더의 바탕이다.”



# 뒷담화맨, 직장동료때문에

화가 치밀어  
있어

명쾌한 솔루션

〈법륜스님의 즉문즉설〉강연 중에서



**법륜스님** 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설립. 다양한 종교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엄마수업’, ‘법황해도 랜찰야’ 등의 많은 저서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고, 사회운동가·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2002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악사 이사이상’을 수상했다. 대중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나누는 ‘즉문즉설’ 강연을 통해 인생의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오  
늘  
의  
사  
연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의 연결고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게 사실. 직장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혹은 흔하게 겪는 사람사이 갈등을 짚어보자.

저는 회사 내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입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다른 직원이 제 근무태도에 대해서 뒷담화 했다는 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제 뒷담화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난 후부터 저는 그 직원을 대할 때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직원은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고 계속 저한테 친한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저한테 다가올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법륜스님 —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머리속여 ‘앞담화를 안 하고 뒷담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웃음)

사연인 — 예?

그 직원은 사실 질문자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뒷담화를 한 거예요. 제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스님! 법문을 왜 그 따위로 하십니까?’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강연 끝나고 가는 길에 자기네끼리 ‘법륜스님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낫겠어요? 질문자더러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앞담화를 했다면 제가 개선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뒷담화를 하니까 제 기분만 나쁘잖아요.

아니지요. 옛날부터 ‘없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라고 했어요. 임금을 욕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없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뒷담화는 오래 된 인류의 문화입니다.

제 성격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 괜찮은데, 제 근무 태도에 대해서 ‘일을 못하네’, ‘일을 안 하네’라며 뒷담화를 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요.

뒷담화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지요. 안 하면 물론 좋지요. 그게 최선이지요.

그런데 앞담화와 뒷담화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뒷담화는 ‘차악’, 앞담화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나쁘지만 그래도 앞담화 안 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예, 제가 무슨 임금도 아니고요.(모두 웃음) 또 뒷담화는 전 인류의 문화라고 하시니, 저도 조금은 수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안 하면 좋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계율에 ‘뒷담화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늘 있어온 보편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나마 앞담화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 분이 그래도 당신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니까 뒷담화를 했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내 뒷담화 해 놓고 어떻게 내 앞에서 웃을 수 있나?’

그럼 상대가 뒷담화도 하고 내 앞에 와서 인상도 쓰면 좋을까요?

뒷담화는 했더라도 내 앞에서는 웃어주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도 저를 조금 배려하니까 여기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 하지 않는 걸 겁니다. 끝나고 귀가할 때 자기네끼리 불만을 얘기 하잖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장 손들고 삿대질하면서 얘기하겠지요?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상대를 고려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웃으면서 ‘안녕’ 하면 질문자도 웃으면서 ‘안녕’ 하면 되요.(모두 웃음)

제 법문에 대한 댓글도 90%는 긍정적, 그리고 10%는 부정적이죠. ‘중놈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네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 등.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 신경 쓰느라 잠을 못 자면 저만 손해예요. 그리고 개중에는 소송을 하면 처벌을 받는 뒷담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소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해봐야 별 이로울 소득이 없어요. 변호사 선임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시하는 게 더 이로울지, 소송을 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 문화가 원래 그런 거야. 설사 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했더라도 내 앞에서는 웃고 친한 척 해 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하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뒷담화를 한 그분이 계신다면...”(모두 웃음)

같이 친한 척  
내 뒷담화를  
할 때는 언제고



뒷담화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꼭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얘깃거리 ‘소재’인거예요.

그렇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체적인 하나의 실례를 소재로 삼아서 ‘우리가 사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니까요. 이 사연은 우리에게 대화의 소재를 제공한 것뿐이에요. 저에게 질문 던진 내용을 가지고 ‘그럴 때는 사물이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얘기를 나누는 것니까 ‘누가 질문자를 뒷담화 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내 뒷담화 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사 여기 그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런 걸 여기서 질문하느냐?’하거나 ‘뒷담화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뒷담화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두 번은 들어봤지요? 뒷담화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질문자만 겪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뒷담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걔 어때니?’, ‘아휴, 걔 문제가 많아’, ‘그래, 맞아. 걔 성질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지요. 우리끼리 있을 때 이리쿵저리쿵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대화 소재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WONIK**

이  
런  
재  
간  
동  
이  
같  
으  
니



ㅋㅋ맙  
ㅋㅋ소  
ㅋㅋ사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 그랑프리

## 원익아이피에스

나민권 상무, 이승한 부장 외 41명

SKH 총 매출 기준  
2016년 199억(5대 판매).  
2017년 525억(14대 판매).  
2018년 1430억 매출(33대 판매).  
전년 대비 260% 급성장.  
PE TEOS로 편중된 SKH 판매구조  
에서 HyEta ZrO<sub>2</sub> 및 高 두께 TEOS,  
ALD Ox, NOA ALD TiN 등  
판매 다각화 달성.  
매출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도해서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보통 지시를 받아 일할 때에는 일에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며 주도적인 마음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잘 반영 되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책임감을 갖게 되어 맡은바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특히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된 목표의 성과”

그동안 오로지 한가지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며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위기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수상의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유관부서원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에도 저희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신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지원팀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마음을 써주신 원익아이피에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자부심이 자신감으로”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저희는 납품한 설비의 가동률 문제로 사업의 기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천사무소 5평 남짓한 회의실에서 더위와 싸우면서 끼니도 거르면서 오로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두가 밤을 새워가며 매달렸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고객의 실망과 질책, 그리고 모든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HyEta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장비의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Setup과 양산 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표적으로 공정 중 잦은 Particle 발생과 Pump Down 문제가 있었습니다. Pump Down으로 Backstream 되어 열심히 Chamber를 Cleaning하고 있는데 바로 옆 Chamber가 동일한 문제로 Backstream 되는 것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절망에 빠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끝없이 연구하고 실험했던 그 시간을 거치면서 모든 상황은 호전이 되었고 극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시간이 온다 해도 저희는 기꺼이 다시 그 일을 할 것이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할 수도 없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동료의 도움과 동료를 도우려는 생각이 어우러져서 다 같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설비회사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한 사랑감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하나하나 전진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WON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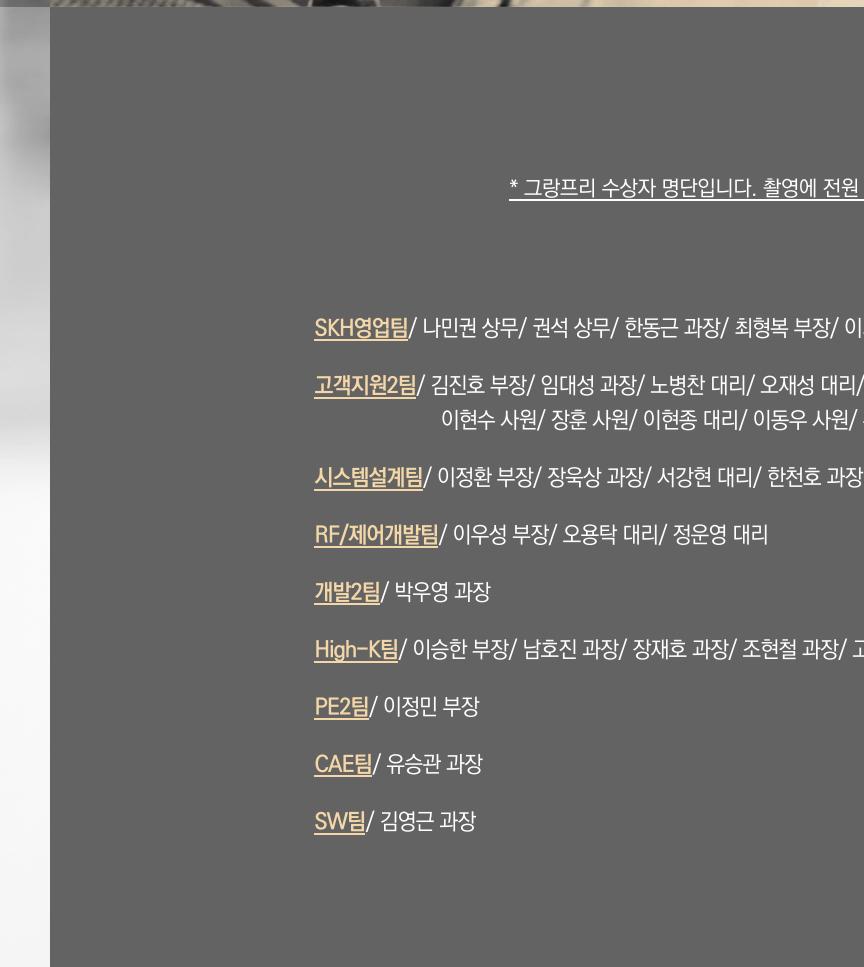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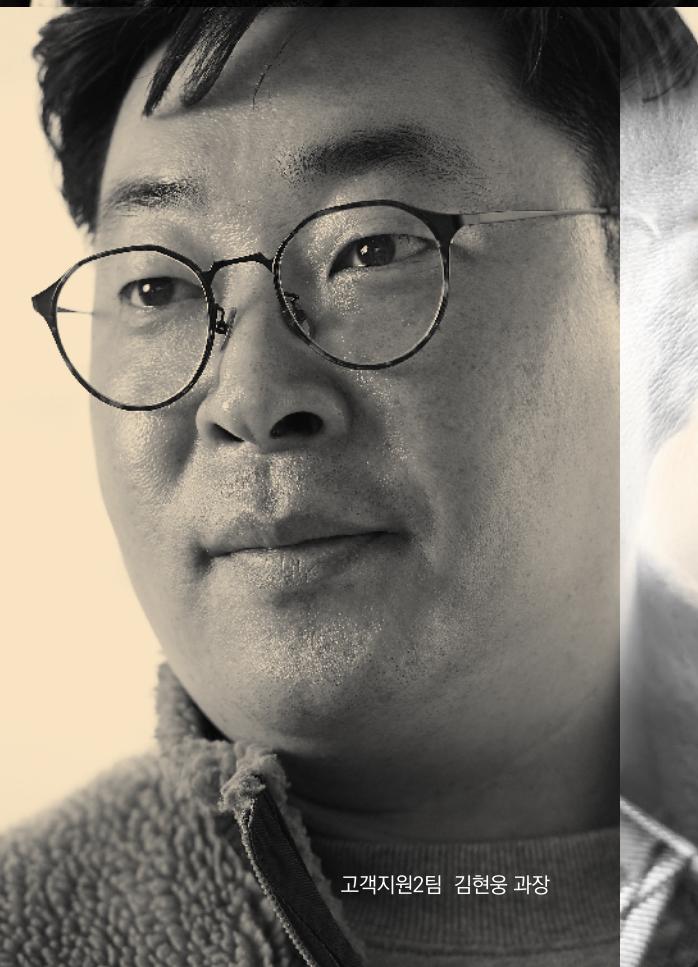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고객의 속사정까지 세밀히 파악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 차를 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이 나올 것이다. 절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만들고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SKH 신시장 개척은 매출 증대라는 결과도 있지만, 향후 세계 1위 반도체 설비회사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진하여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SKH영업팀/ 나민권 상무/ 권석 상무/ 한동근 과장/ 최형복 부장/ 이희동 과장/ 이덕형 사원

고객지원2팀/ 김진호 부장/ 임대성 과장/ 노병찬 대리/ 오재성 대리/ 이지훈 대리/ 전영우 대리/ 김화지 대리/ 이영환 대리/ 최준영 사원/ 김동희 사원  
이현수 사원/ 장훈 사원/ 이현종 대리/ 이동우 사원/ 유연홍 사원/ 서시인 사원/ 양동수 사원/ 이석민 사원/ 최우식 사원

시스템설계팀/ 이정환 부장/ 장욱상 과장/ 서강현 대리/ 한천호 과장

RF/제어개발팀/ 이우성 부장/ 오용탁 대리/ 정운영 대리

개발2팀/ 박우영 과장

High-K팀/ 이승한 부장/ 남호진 과장/ 장재호 과장/ 조현철 과장/ 고건희 대리/ 한재진 대리

PE2팀/ 이정민 부장

CAE팀/ 유승관 과장

SW팀/ 김영근 과장

# 기술개발 우수상

원익아이피에스

나경필 부장 외 5명

SEC P1 V5 양산 POR 확보.

V6 개발 POR 확보.

차세대(3세대) MOLD 向 공정 및  
설비 개발을 통해 QUANTA JEP  
성공을 달성.

세계 최초 CVD VHF 기술,  
Impedance Matching System 기  
술, 고온 ESC 기술의 양산화에 성공  
하여 산포, 생산성, 고품질 막질 구현.  
QUANTA 설비 정지 LOSS 개선을  
위해 ALF 생성 원인 및 현상 규명 및  
제어 기술 및 Particle Reduction  
기술을 확보하여 Oxide 산포,  
Particle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설비  
가동률 향상을 실현.



원익IPS는 저의 첫 직장으로서 처음 신입 사원으로 MOLD PJT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 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원익IPS는 국내  
최고의 반도체 설비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가는 단  
계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확신하라..!”

원익인상(기술개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8년도에 CVD 기술 도약을 위해 노력하며, 고객사  
의 QUANTA 설비 납품/양산화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고객사 양산화 및 공정 성능 향상에 힘써준 MOLD 팀원 및  
MOLD CVD 기술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Hardware 개발  
에 힘써준 설비개발실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특히  
QUANTA TFT 및 성능향상, 양산화, 설비 안정화까지 원익IPS  
의 Hotline을 구성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주신 대표이사  
님께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휴일 및 야간까지 목표된 업무를 위  
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보게 해준 선.후배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전 세대 제품에 원익IPS 설비가  
납품되지 않았던 원인 및 현상을 명확히 분석하여 QUANTA 설비  
공정 및 Hardware에 반영. 3세대 대응 가능한 Roadmap 작성 후  
제품에서 요구되는 CIP 기술을 사내 Mirror Tool을 통한 검증으  
로 고객의 기술 신뢰 확보를 최우선하였습니다. 이후 산포 불량 설  
비들이 발생한다는 고객 VOC가 접수됐을 때도 현장에서 빠른 분  
석 및 대응이 고객사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감소  
로 이어져 신규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  
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진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  
니다. 이에 고객사ニ즈에 맞는 연구개발과 그에 맞는 품질 개선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합니  
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사와 동일한 환경의 사내설비 인프라 구축  
및 선행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도체 동향 및 선행  
개발을 위해서는 학회, 포럼, 세미나 참석 등의 시야 확보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2018년은 고객사에 새로운 제품을 공급/납품하여 평가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는 올해 신입사원들이 많이 입사하였습니  
다. 훌륭한 신입사원분들과 함께 더 노력하여 Global 장비회사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출 1조  
달성을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로써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냅시다. **WONIK**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고객사에  
전달할 수 있어 수상의 기쁨이 큅니  
다. 앞으로 개인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  
및 가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반도체 연구소 설비개발실 모듈개발팀  
전용백 부장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실 MOLD팀  
나경필 부장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적인 자세와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 합니다.



반도체 1사업본부 고객지원 1팀  
이문규 과장

아직 해야 할 일, **해야 할 목표**가 많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연구소 설비개발실 시스템 설계팀  
권봉성 부장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실 MOLD팀  
임재갑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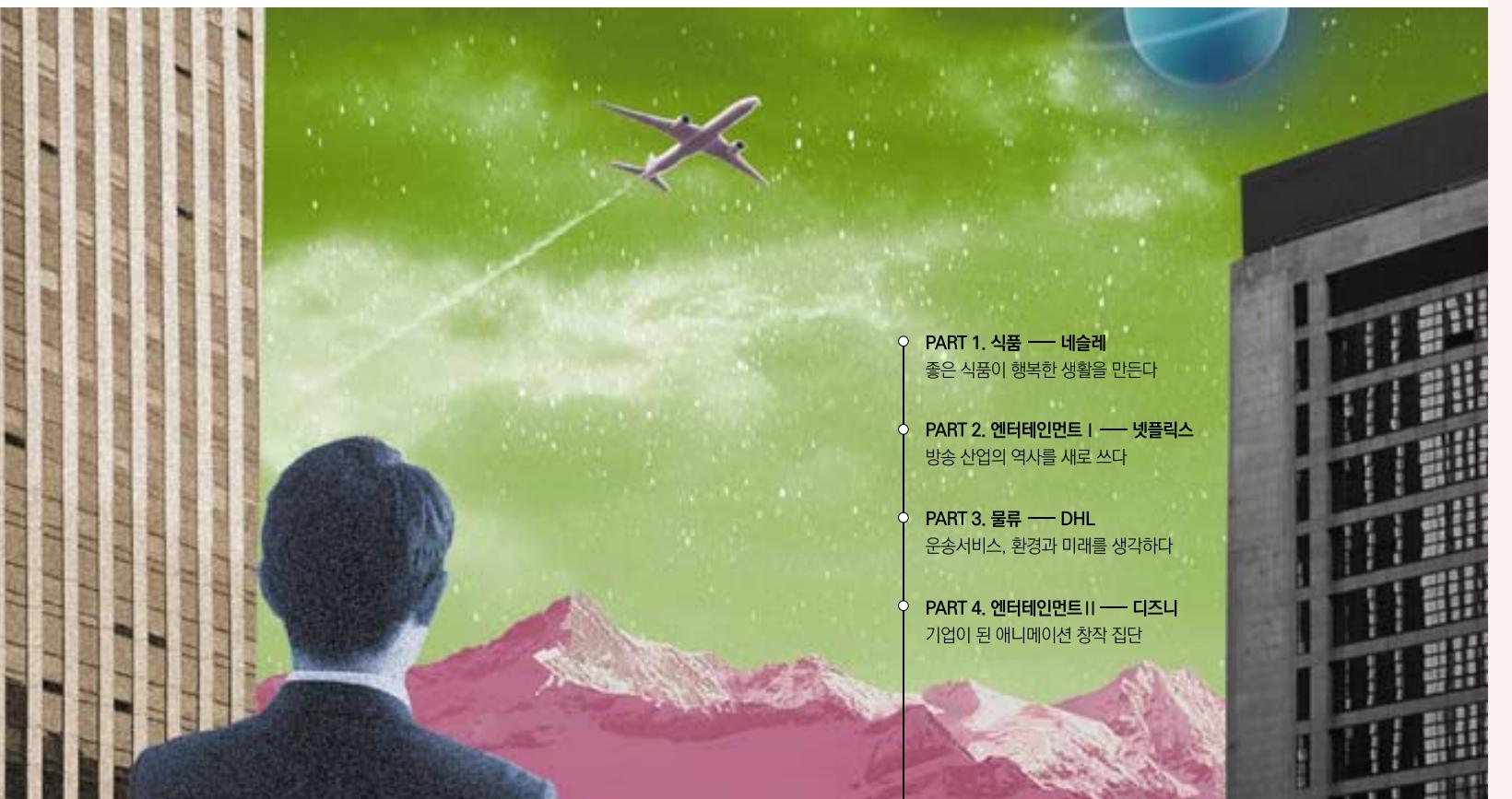
반도체 1사업본부 SEC 영업팀  
곽경환 과장



지난 30년간 원익은 반도체와 헬스케어산업 발전에 일조하면서 국가 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해왔다. 오늘날, 원익은 글로벌 1위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술 혁신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할 터. 이번호부터는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역량과 사내 문화를 분석하면서 세계를 향한 원익인의 시야를 넓히고자 한다. 식품과 물류, 엔터테인먼트까지 세 개의 대표 키워드 아래에 선정된 기업들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세계무대를 향한 남다른 솔루션이 필요한 지금, 글로벌 기업문화를 찾아가 보자.

## ‘식품’으로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보다

# 네슬레



- PART 1. 식품 —— 네슬레  
좋은 식품이 행복한 생활을 만든다
- PART 2. 엔터테인먼트 I —— 넷플릭스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다
- PART 3. 물류 —— DHL  
운송서비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다
- PART 4. 엔터테인먼트 II —— 디즈니  
기업이 된 애니메이션 창작 집단

원익이 주목한 세계  
|  
글로벌 기업의 핵심 역량  
키워드로 읽다

첫 번째, 다국적기업 <네슬레>. 식품으로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참견’하고 있는 네슬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이다. 150년 이상 품질에 대한 열정과 영양 가치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날까지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듯, ‘영양, 건강, 그리고 웰니스(Nutrition, Health and Wellness)’라는 네슬레의 대표 전략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워라밸’과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를 최대 가치로 꿈는 요즘 세대들과도 네슬레의 메시지는 맞닿아 있다. 네슬레의 구성원들은 자신한다.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에도 기여한다고 말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그 믿음의 원천을 하나씩 밝혀본다.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다 – 네슬레의 역사와 성장**  
네슬레가 세계 최대 식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인수 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단순히 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현지인들이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지 기업을 인수한 후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이에 네슬레는 수많은 기업을 인수합병 후 ‘네슬레’에 자연스레 동화되도록 했다.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금액보다 기업 문화가 네슬레와 적합한지를 따져보았다. 대표적인 성과로 미국의 애완동물 식품회사인 퓨리나를 들 수 있다. 미 중부지역의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퓨리나를 인수함으로써 바야흐로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도 브랜드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특히 인수 직후 퓨리나 공장에 방문한 당시 네슬레 사장이 남긴 말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네슬레의 성장비결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시대를 관통하는 네슬레의 핵심 가치, 공유가치창출

네슬레는 자신들의 핵심 가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다. 유통이 어려워 남는 우유를 오랜기간 보관하는 방법을 찾고, 모유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대체 우유 생산 등을 고민하며 시작되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공유가치창출의 본질일 터. 특히 영양, 물, 농업 부분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목표와 역할을 부여했는데, 구체적인 미션은 다음과 같다.



### Nestlé said —

우리는 당신들을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해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 영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나아가 인권 및 노동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G) 지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모범적인 인권과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비즈니스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커뮤니티에 포함된 3천만가구의 생계 향상을 위한 지원 한다. 대표적으로 '네슬레 코코아 플랜 집행'을 통해 코코아 생산지역 농장을 개발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공급자와의 협업을 통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부패와 뇌물 반대 등을 장기적인 목표로 수립하고 진행해오고 있다.

지구를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 제로(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품 수명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능한 한 지속가능 재생자원을 활용하며 폐기물 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네슬레의  
이끌어낸  
혁신을  
기업문화

## 1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등으로 차별화하지 않으며,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에 소개될 네슬레의 어떤 운영 원칙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기본 조건들이자 직원에게 전네는 약속이다.

## 2 유연성을 미덕으로 여긴다

네슬레는 경영진 또한 다국적화되어 있는 만큼 조직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사업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음을 구성원에게 인지시킨다. 인수합병 등 다양한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수월하게 작용했다.

## 3 가능성 향한 발견을 주저하지 않는다

제품이 우수하지 않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기본을 심어주며,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개발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도 전 세계 500여개의 네슬레 연구소에서는 성별, 연령, 계층별로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4 리더십과 구성원의 책임감을 강조한다

네슬레의 성공은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이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하고 책임감을 배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룹의 중심 가치를 존중하는 유능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의 발전과 계발을 지원하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

## 5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기업이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만 직원들 또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네슬레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 상해,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치 사슬을 따라 관련되는 직원, 계약업체 및 기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쓴다.

## 6 인간적인 연결의 순간을 만든다

회사에 애원동물을 데려올 수 있고 워킹맘들은 시간 선택제로 근무가 가능하다. 근무시간 중 고급 차와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에 주기적으로 대화시간을 갖게 한다. 직급의 구분 없이 모션 테스크를 사용해 하며, 부서장 업무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만들었다. 수평적 소통의 협업문화가 업무 방식과 사무환경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립된 느낌과 정신적 압박의 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곧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발판으로 전이된다. **WONIK**



# 세상에서

## 유일무이한

### 최고가 됩니다



BY MYSELF

WONIKIN v.5.8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은 우리에게 정성과 끈기를 요구하며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과는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관점을 익혀야 한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을 넘어서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얻어질 수 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타오르는 열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

### 위기를 극복한 우리 안의 저력

안녕하십니까? 원익홀딩스 이재현입니다. 2016년에 신임 대표이사로 인사되었는데, 꼭 3년 만에 다시 원익가족 분들과 뵙는군요. 아직 많은 일이 진행 중이라 정신없이 바쁜데,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조정실장직을 겸임할 때 보다 조금 낫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집중하느라 도통 시간을 낼 새가 없었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년부터 대표이사 직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처음 6개월 동안은 현장에 내려와서 실무 부서와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크고 작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팀별 간담회, 팀장·임원 개별 면담을 통해 더 자세히 업종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국내외 시장 현황을 직접 보고 듣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가졌죠. 결과적으로 작년은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과 조직문화를 깊이 생각하고, 구성원들과 접점을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원익홀딩스의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 특정한 소수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그다지 높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고, 꾸준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부단히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아이템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매진해야만 지속성장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익홀딩스는 경기 부침과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이 있기까지 임직원들의 열정과 절박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철저한 원가절감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고객정신으로 무장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쓴 결과 국내 M/S 분야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임직원 모두의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 존경받고 박수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원익홀딩스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Total Gas Solution Provider'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가스 공급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죠. 이를 위해 '자율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열정적으로 도전을 즐기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경영·실천경영·학습경영을 말합니다. 모든 담은 현장 즉, 고객과 시장에 있으므로 현장을 가까이 한다는 것과, 백마디 구호보다 한 번의 실천이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항상 새로운 팀구하고 협력을 축적시켜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51

저는 원익홀딩스가 고객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남보다 앞서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라면 가스 관련된 모든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됐으면, 또 단순조립업이 아니라 기술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미 1994년에 국내 최초로 가스공급장치를 해외에 수출(대만)하기 시작한 역사가 있고, 반도체용 설비에 방폭이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시켜 현재는 경쟁사 대비 가장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또 AGV(Automatic Guided Vehicle)와 연동한 자동공급장치를 최초 개발했고, 가스정제장치를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공급하고 있지요. 참 대단하죠?

최근에는 납기 경쟁력과 품질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지금은 2개 공정을 완성했고, 오는 2021년까지 총 9개 공정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드타임을 현재보다 35%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훌륭한 자세에서  
뛰어난 인재가 된다

'미치려면 미쳐라, 미쳐야 미친다'란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올 한해는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 신시장 확대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시장 진입을 목표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생각입니다. 저도 단단한 각오로 임할 생각인데요.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이 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본받아 묵묵히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뛰어난 경영 사례를 찾아보고 내재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손꼽을 만한 것으로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소개할까 해요. 창립 이래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자기만의 명확한 사업 분야를 고집하면서 어떤 경쟁사도 넘보기 힘든 전략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죠. 직원을 채용할 때는 'Hire for attitude, Train for skill(태도를 보고 채용하라, 기술은 익히면 된다)' 이런 철학으로 능력보다 자세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이 회사의 여섯 가지 성공 비결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_\_\_\_\_ **WONIK**

첫째, 잘하는 것만 한다.

둘째, 단순함을 유지한다.

셋째, 요금은 낮게 유지하고 비용은 더 낮게 유지한다.

넷째,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식으로 고객을 대접한다.

다섯째, 결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훌륭한 인재를 고용한다.

"창의적인 도전정신,  
이해와 존중,

겸손함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인재입니다."

불광불급(不狂不及)

어떤 일을 하든 미친 듯이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

우리 훌륭스 임직원 여러분,  
- '자신감 있는 경영'이 중요한 훌륭스 경영학회  
부작금에 의해 지속 성장하는 회사로  
성장, 성장해 가는 시대

이 놀라운



#12



### · 오준 사원 ·

원익홀딩스 자동화TF팀

1991. 10. 30

몸 만들기에 한참 열중하여 벌크업을 위해 무리한 식단을 운용하다가 위염, 장염으로 고생해서 찌웠던 몸무게를 모두 상실했을 때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일도



청소년의 자유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선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버킷리스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버킷리스트는 마지막 20대의 건강한 몸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태국으로 2달 간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지역 주민 500명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음식, 무예, 전통놀이, 한글, 전통놀이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주민 분들이 무척이나 신기해하고 즐거워 하셔서 뿌듯했습니다. 태국에 한국을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에 남는 순간

대학 시절, 영어권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나 교환 학생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 되는 것

원익홀딩스 축구 동호회 축구 경기 주종 택배 박스 뜯기  
(내용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신 소확행

수학 선생님.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음이 가장 평온해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의 희열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학 과외를 하면서 학생과 소통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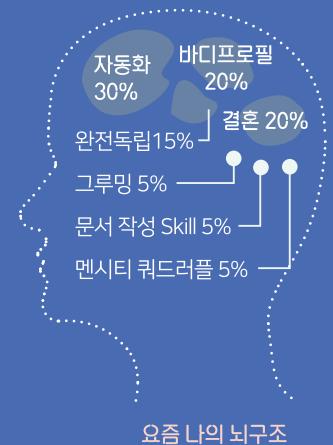
두번째 직업을 갖을 수 있다면

2018년 공채 4기로 입사  
이름풀이 : <오준>준수하게 살아라, 지킬 건 지키고 살아라  
양띠. 전갈자리. AB형



예전부터 돈벌기 시작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해냈을 때, 예를 들어 교수님이 사주셨던 식사 중에 한 정식 집이 있었는데 꼭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모시고 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가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요즘 나의 놔구조

작년말에 구입한 저의 첫 차에 혼자 있을 때가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첫 자산이자 유일한 자산, 할부는 No!)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수학 선생님.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음이 가장 평온해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의 희열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학 과외를 하면서 학생과 소통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두번째 직업을 갖을 수 있다면



2018년 공채 4기로 입사  
이름풀이 : <오준>준수하게 살아라, 지킬 건 지키고 살아라  
양띠. 전갈자리. AB형

#13



아들아~ 준비됐니  
떠나자 제주도로

(소확행 이거 몰라서 네이버 검색 했네요^^)

아들과 레고(LEGO)방에 가서 몇시간 동안 같이 조립하고 완성 했을 때

요즘 소확행

친구들과 제주도 자전거 일주. 돈이 없어 길에서 자고 라면만 먹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네요. 젊어서 고생은 할 만 하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 날 것 같은 문득문득 추억



레고 조립. 꼬딱지만한 부품 찾고, 조립하면 아무 생각이 안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요

집사람과 애들 앞에서 싸운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기억해요. 많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먼 미래보다 아들과의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생각합니다.  
틈틈이 자전거 태우며 맹훈련 중입니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사진작가.  
되돌릴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을 남기는 사진이 매력 있네요. 배우고 싶고요.

두번째 직업을 갖을 수 있다면



요즘 나의 놔구조

2012년 8월 28일 막내가 태어난 날,  
더 잘하진 못하겠지만 더 많이 안아주고 싶네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나요



이름풀이 : <김국선>나라에 이로운 일을 해라  
(죄송합니다 잘 못하는 듯 합니다)  
용띠. 염소자리. 성격 좋기로 유명한 B형



## 벽을 허물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원익로보틱스 신사업팀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열쇠가 필요하다.

세계 로보틱스 서비스 시장,

그 까다로운 시장에 발 디딜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법을 고민하는 이들.

원익로보틱스 신사업팀은 경력과 시스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어디서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원익로보틱스 신사업팀은 올해 1월 새로이 조직됐다. 기존에는 신사업 부문과 마케팅 부문이 신사업마케팅팀으로 묶여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으로 각각의 업무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 조직을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원익로보틱스의 보유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의 니즈를 매칭해 로봇 사업에 반영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획, 제안, 상품화를 맡는다. 팀 구성원은 모두 세 명으로,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능력만큼은 일당백이다. 대부분 입사 1~2년 차로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바쁜 나날이지만, 오래전부터 근무했던 것처럼 굳건한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를 소화해낸다. 이들의 말마다나 ‘준비된 조직’인 것이다. 단비가 내린 어느 봄날 오후, 판교 사옥에서 신사업팀을 만나 의기충천한 세 사람의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들었다.

# Chance Challenge Change

Team Slo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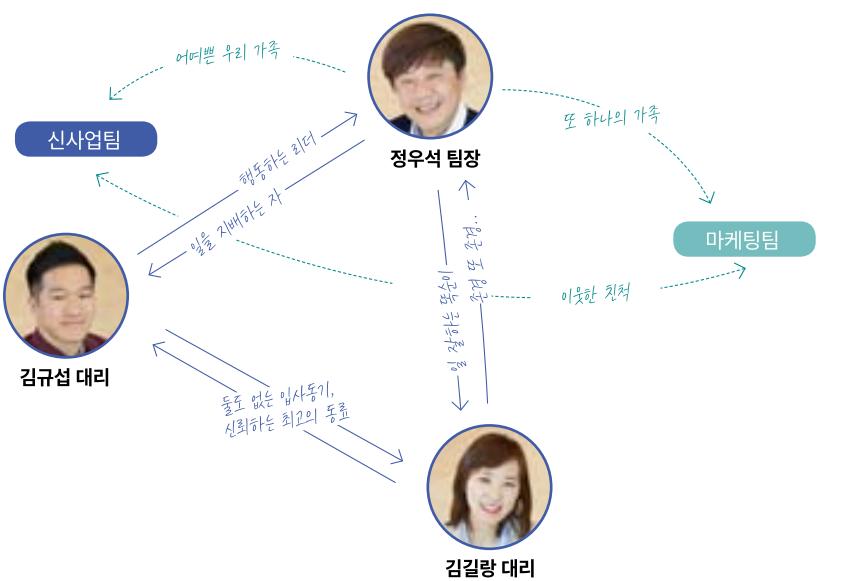
신사업팀은 Chance(기회)이고,  
Challenge(도전)하며,  
Change(변화)의 주체다.

BY MYSELF  
—  
WONIKIN v.5.8



신사업팀은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Solver입니다. 신규 로봇과 토이 로봇 서비스로 올해 11억 원 이상의 새로운 매출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원익로보틱스 신사업팀 관계도



##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우리 팀의 강점은 무엇인가?

**정우석 팀장** \_\_\_\_\_ 로보틱스 서비스(RaaS; Robot as a Service) 사업에 대한 기획과 파트너십 대상 고객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제안/컨설팅,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업무도 맡고 있죠. 근래에 주로 해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팀은 해외 유학 경험이라든지 해외 관련 업무를 자주 수행해 봤기에 큰 두려움은 없어요. 용기 있고 영리하고 아주 재빠르죠. 참 재주가 많은 팀원들이에요.

**김규섭 대리** \_\_\_\_\_ 보안 로봇 분야를 맡아 사업 기획을 진행하고, 원익 계열사를 비롯해 대형 SI(System Integration) 기업과 사업 기획, 제안, 상품화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외 시장에 사업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모두 외국어 실력이 출중해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저도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길랑 대리** \_\_\_\_\_ 토이 로보틱스 서비스(Toy Robot as a Service)에 관한 사업 기획과 해외 시장 발굴, 그리고 관련 기획과 제안, 상품화를 맡고 있어요. 팀원 모두 글로벌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좀 더 스펙트럼이 넓고 정밀한 정보 자료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 마치 콜럼버스가 된 것처럼 도전 의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 로보틱스 서비스 사업의 매력은?

**김규섭 대리** \_\_\_\_\_ 상당히 도전적인 사업입니다. 아직은 이 시장을 누군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봐도 레퍼런스급이 거의 없는 영역이죠.

**김길랑 대리** \_\_\_\_\_ 그만큼 남들이 하지 않는, 혹은 할 수 없는 시장을 발굴하고 이끌어감으로써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도전 의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상황이 많긴 하지만요(웃음). 도전에 대한 부담만큼 다양한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 신사업팀의 성과, 역량을 더욱 향상하기 위한 요건은?

**정우석 팀장** \_\_\_\_\_ 파트너십 관계의 기업들과 서로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R&R(역할과 책임: Role and Responsibility)을 정립해야겠지요. 사업 기회 측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가령 보안 경비, 원구 제조, 교육, 노인 대상의 서비스 등을 들 수 있겠고요.

**김규섭 대리** \_\_\_\_\_ 로봇은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즉 한 분야에 국한된 시각으로는 산업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을 위한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바라보면 팀원들의 전공과 경험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렉서스를 개발할 때 상품기획 단계부터 인류학자와 심리학자를 동원했다고 해요. 우리 신사업팀은 그러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WONIK**

원익로보틱스 신사업팀의  
오늘, 그리고 내일



RaaS 사업 분야  
기획·제안·컨설팅 업무 수행



해외 시장 발굴 및  
사업 영역 확대



시장적합성 기반  
시장 주도력 및 우위성 확보



보안·여가 분야 관련  
신규 아이템 기획·상품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날, 이런 문자 한 통 보내는 이가 있다면 퇴근길  
이 힘들지 않을 터다. 변지훈 과장은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는 황상우 사원이 있어 늘 힘이  
난다고 말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달라  
지는 법! 선후배 사이를 넘어 파트너로, 모든 고민을 나누며 더욱 돈독해진 두 사람. 서로  
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

황상우 사원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칙하고 순박한 성품을 알면 정감이 가지 않을 수 없죠. 좌충우돌하기 마련인 신입사원답지 않게 사람을 대할 때나 거래처를 만날 때, 진지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직은 가르칠 것 이 많고 더러 뚱고집을 부릴 때도 있지만(웃음),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양해를 구할 줄 아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요.

주 업무를 같이하기 때문에 대화할 기회도 많은데, 평소 생각이나 고민거리를 자주 듣게 돼요. 아무래도 회사생활을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와의 관계에 대해 이것저것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해요. 대화를 하는 만큼 황 사원을 잘 알게 되니까 꼭 맞겠다 싶은 조언을 해주고, 나름대로 개인사도 물어 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물으면 더러 민감해할 수 있는데, 스스럼없이 대답해주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솔직한 친구구나’ 싶어요. 제게는 볼매(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같달까요?



변지훈 과장  
원익큐브 수지영업2팀

멘토

배움에 대해 열려 있고 습득이 빠른 편이라  
업무적인 부분은 금방 깨달을 거라 기대해요.  
거래처를 파악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해야 할지  
차근차근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는 방법, 신뢰를 얻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체득할 수 있도록 힘쓸 거에요.  
한 사람의 당당한 원익인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걱정 말아요, 그대



제게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까마득한 분인데, 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첫 출근한지 아직 석 달도 안 됐지만, 꼭 3년은 된 듯한 기분이에요.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중에서도 변과장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 분들이 '변지훈과장님만 보고 따라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 말이 꼭 맞아떨어진 셈이죠.

처음 만나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귀찮게 많은 질문을 해도 일일이 답변 주시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는 성숙해지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여러모로 보좌하면서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상우 사원  
원익큐브 수지영업2팀

멘티

저도 변 과장님을 따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든 믿고 의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저만의 거래처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얼마 전부터  
변 과장님을 따라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은 기대  
만큼 걱정도 드는 신입사원이지만, 모두 겪어내면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황 사원을 보면서 저의 신입사원 때를 떠올리게 됐어요. 2013년 입사했던 때 얼마만큼 열정이 있었는지, 지금은 왜 사그라들었는지 반성도 하게 됐죠. 황 사원의 모습을 보면서 덕분에 많은 자극을 얻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더 잘할 수 없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참 보기 좋아요. 사회 초년생다운 앗된 모습도 그렇고요.

한번은 김포에 있던 거래처를 방문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저녁 퇴근 시간 무렵이 되어서인지 도로는 차들로 밀리기 시작하고, 내비게이션을 보니 오후 6시 30분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황 사원을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황 사원이 입을 다물고 혈색도 창백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하고 있던 찰나, 황 사원이 "과장님, 저 먼저 내려서 가겠습니다!" 말하고는 차에서 내려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거래처에서 긴장한 탓에 수분 섭취가 많았고, 출발하던 무렵에 슬슬 신호가 오더니 교통체증 속에서 인내심을 잃을 뻔했던 거죠(웃음). 아직 서먹서먹했을 때인데 덕분에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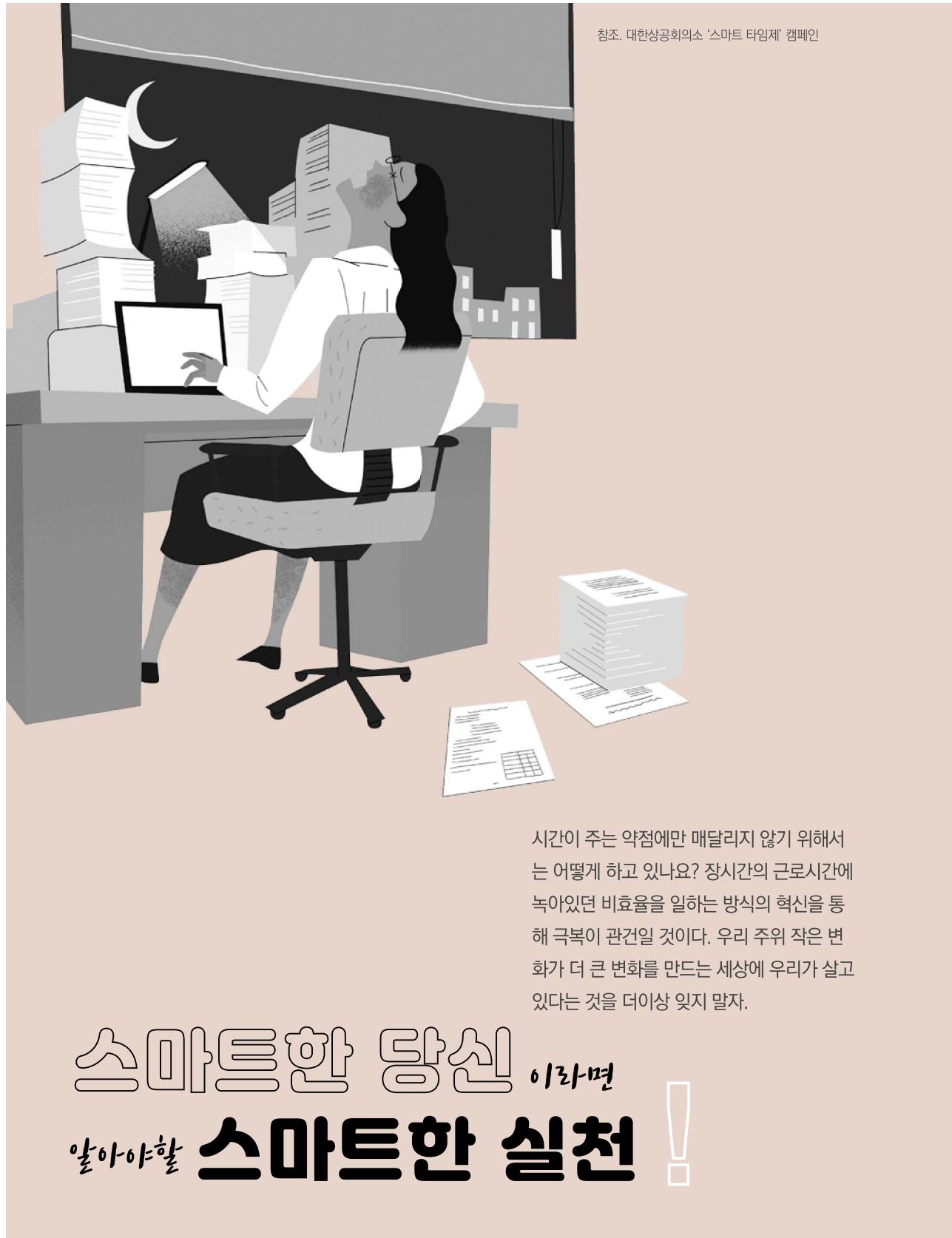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흘러요. 처음에는 참을 만하다 싶었는데 휴게소도 못 들어가고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정말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례를 범했죠. 변 과장님이 깔깔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하. 그래도 이 일 덕분에 가까워졌어요. 곧 변 과장님을 따라 야구동호회에도 가보고,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이라 실력도 없으니 벤치 멤버부터 시작해야겠지만요. 일상에서도 업무에서도 본받고 싶습니다. \_\_\_\_\_

WONIK

영업 일선에서는 무엇보다 성과가 중요하지만, 영업맨으로써 중심을 지키고 회사와 거래처를 잇는 중개자이자 동반자로 오래도록 함께하는 것이 1순위일 것이다. 영업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회사와 거래처 곁에 있겠다는 변지훈 과장. 그리고 그가 지금처럼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고 한걸 끝에 해주면 더할 나위 없다는 황상우 사원.

서로의 성공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는 이들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기대한다.





flower mania

꽃을 대하는 방법 하나,  
내 마음을 먼저 차분히 들여다 보고 편하게 대해야  
꽃이 내 손을 알아보더다.



자타공인 씨엠에스랩의 꽃덕후 1호. 원데이 플로리스트

김태영 대리 씨엠에스랩 마케팅팀

원데이 플라워 클래스 수강생

박기현 과장(씨엠에스랩 연구소 기초연구팀),

류현희 과장(씨엠에스랩 영업1팀)

# 봄날의 꽃덕후와 함께

원데이플라워클래스



건물에 난 모든 창문으로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지던 4월의 어느 봄날. 브랜드칸타워 7층에서는 미니 플라워 클래스 준비가 한창이었다. 자타공인 '꽃덕후' 김태영 대리와 그녀를 따라 앞치마를 매고 선 두 명의 원익인이 기자를 반겼다. 꽃향기와 풀내음이 조금씩 번져가던 그 날의 풍경으로 원익인 여러분들을 초대해본다.

꽃꽂이에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선물하는 상대를 떠올리다보면 꽃과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왼쪽부터 박기현 과장, 김태영 대리, 류현희 과장

꽃의 운명은꽃을 선택하는 이에게 달려있다

김태영 대리는 씨엠에스랩 마케팅부의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다. 스위스킨 브랜드를 맡고 있는 그녀는 제품개발과 기획부터 매출관리까지 브랜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빠듯하고 빈틈없는 일상에 본격적으로 꽃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약 6개월 전으로 거슬러 간다. 평소에도 꽃을 좋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종종 꽃 선물을 해왔다는 그녀. 마침 눈여겨 본 학원이 회사와 가깝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녀는 꽃덕후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단다.

“일주일에 두 번, 네 시간씩 꽃을 배우고 있어요. 수업이 있는 날은 퇴근 후 남은 하루를 전부 쓴는 셈이죠. 클래스 하나 당 3개월 코스로 진행되는데 별써 두 번째 코스를 듣고 있어요. 아직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익인들에게도 꽃의 매력을 전달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초보자들도 도전하기 쉬운 꽃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꽃꽂이에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선물하는 상대를 떠올리다보면 꽃과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카사노바’라 불리는 장미가 오늘이 주인공임을 알 수 있었다. 찰랑거리는 느낌의 스카비오사, 컬러감이 좋아 주로 부케에 쓰인다는 왁스레이에 이어 들꽃을 닮은 펜-

타스까지. 장미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낯선 종류였지만 꽃바구니를 구성하는 꽃의 이름을 하나씩 소개하는 김태영 대리의 세심함과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안내에 따라 요리조리 고개와 손을 움직이는 두 명의 원익인에게도 시선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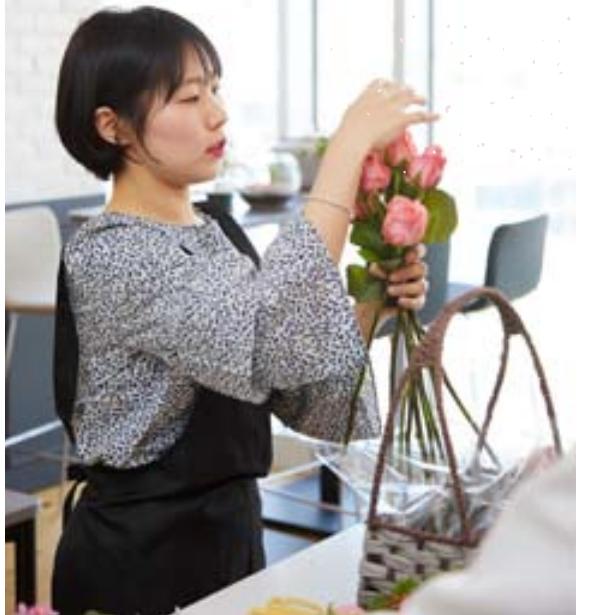
“저는 연구소 기초연구팀의 박기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곧 결혼 3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아쉽게도 지난 1, 2주년을 모두 제대로 기념해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아내에게 꼭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었어요. 미리 맛보는 결혼기념일 선물로 오늘 꽃바구니를 들고 가면 좋아하겠죠?”

“영업 1팀 류현희 과장입니다. 병원과 피부과에 입점하는 화장 품 영업을 맡고 있어요.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가 아내의 생일이에요. 올 초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맞는 생일이죠. 연애 시절에도 그랬고 평소 꽃 선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게 되었네요(웃음).”

꽃바구니를 만들 때에는 얼굴이 제일 크고 동그랗게 핀 꽃을 맨 앞에 둔다고 한다. 꽃바구니를 받을 두 원익인 가족의 얼굴에도 각자의 꽃바구니에 가운데를 차지한 장미만큼이나 텁스러운 미소가 지어질 것임을 자연히 상상할 수 있었다.

박기현 과장 사실 제 아내도 플라워 클래스를 부지런히 듣고 있거든요. 오늘 직접 경험해보니까 아내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한 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었어요. 입사 두 달 차라 아직 회사에 적응 중인 시기인데, 이 기회로 직원 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류현희 과장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손을 쓰는 일을 좋아해요. 일단 한 번 시작하면 집중을 잘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클래스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영업직이다 보니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한데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취미  
—  
있는

하루 속의 삶은  
풍요롭다.

김태영 대리는 사무실 내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카페테리아의 테이블마다 몰래 온 손님처럼 꽃장식을 해둘 만큼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꽃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궁금해졌다.

“다소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꽃과 함께 하는 순간의 제 마음 상태가 그날의 클래스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채로 학원에 가면 저도 모르게 꽃에게 화를 풀게 되더라고요. 작품이 뜻대로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하고 편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작품을 받을 상대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결과물은 물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꽃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순전히 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취미인데, 따라오는 소리들이 곱지만은 않았다.

“꽃을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 ‘돈 많은가 봐?’ 우리나라에서 꽃이 대중화되고 캐주얼한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꽃이야말로 인간의 일생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날 때, 학교를 졸업할 때, 그리고 심지어 생을 마감할 때에도 꽃은 우리 곁에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안 꽃을 한 번쯤은 받아보는 셈이죠. 꽃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꽃의 대중화에 조금은 일조한 거겠죠?(웃음).”

마침내 세 사람의 앞에는 품에 안기 딱 좋은 크기의 아름다운 꽃바구니가 완성되었다. 일일 미니 플라워 클래스와 함께 한 하루, 코끝에는 성큼 봄이 다가와 있었다. 오후 내내 꽃을 다듬었던 세 사람의 손끝에도 봄이 짙게 묻어났을 테다. 찰나 같은 봄이 지나가기 전, 우리 모두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그런 수수한 마음이 피어나는 오후였다. — WONIK

꽃이야말로 일생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 졸업할 때,  
심지어 생을 마감할 때에도 꽃은  
우리 곁에 있어요. 꽃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클래스에 참여하신 두 분의 열정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제 꽃바구니는 이 자리를 마련해준 인사팀에게 선물할 예정이에요.

아울러 저희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하시고 배려해준 부장님, 그리고 제가 꽃덕후로 발돋움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헤인즈 블라썸(Hyein's Blossom)’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급변하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자유는 자신의 미래기회를 위한 기속적인 노력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미래기회 창출을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망과 도전정신  
으로 성과를 일구어내려는 지속적인 노력.  
그로부터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해 자유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는 자신의 미래기회를 위한 기속적인 노력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미래기회 창출을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망과 도전정신  
으로 성과를 일구어내려는 지속적인 노력.  
그로부터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는 상상력  
스테레오 타입의 기준  
기대할 수 없고  
이 생존 가능성이  
코스피에

**자유는 상상력**  
스테레오 타입의 기준,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이론  
만이 봄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조작보다는  
겁적이 더 성장력이 높은 시대다.  
**원인으로보기 투스 김교진 대역**

**원인의 자유는 서양에스컬이다.**  
여기 계몽시에 비해 다소 구묘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암무 흥정이 자유롭게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각자 개성을 갖고 원인의 자유를 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원익의 자유는 일상  
내に戸 번화가 습관과 같다. 자유롭게 일과 생활을  
취하는 것 없다. 자유나라는 건 일상과 같다.  
주도하고 번화를 이어나가는 건 일상과 같다.  
**원익마트리얼리  
한우성대표**

**자유란 투철한 책임정신의 산물**  
자유란 주어진다는 것은 암묵적인 책임감이 있는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업무에 매진하되 책임감 있게 일해야겠죠.

자유는 변화를 경榷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스스로 변화의  
길이 된다. 이때 평소에 하기 못한 것, 꿈고 싶었던  
경우 해보면 업무에 특구해에서도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거나  
색다른 복상과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한 자리에 머물거나  
밀고 넘기거나 자신을 자유롭게 돌아드는 세상에  
절약금리로 변지출 과정

**원익의 자유는 신뢰**  
회사는 일직일의 능력개발과 성장을  
통시하지만, 일직일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회사는 일직일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익아이피에스 나경필 부장**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의 비로 자유**

**서울은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기반한 시를 성**

서울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이 바탕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이 바탕이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이나  
이미나운 국민으로서 자유가 점점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목표와  
개인의 개별적인 자유를 두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문제  
책임이 명확화해야 자유를 두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미래트리뷴』/박수경 대리

팀원으로서 업무를 보람을 느꼈지만, 팀원들과 열린 소통을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진행 시에는 전문화된 일을 할 때는 업무를 할 때는 성취감과 보다 성취감과 보다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A cartoon illustration of a woman with dark hair tied back with a red bow. She is wearing a green long-sleeved button-down shirt with white polka dots and light blue jeans. She is holding a red smartphone in her right hand and giving a thumbs-up with her left hand. The background consists of pink and white diagonal stripes.

원인의 차이는 뒤가 많은 경우  
연구팀이 소스된 세 암모늄 유두를 기록하여 향수에는  
원래 있는 물질이나 부수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원인을  
그런 이유이거나 아니거나 고지하는 일은 자주 고지  
연구팀은 유도한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제기하는  
영어로는 영어로 표기하고 영어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부록하고 그린 이미지를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번역은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의 자유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기회가 오기까지 평등적으로 기다리자 봄고, 서로  
모이고 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가치롭게 여기고 자신이 어려움을 청하여 책임을  
나누고 갖고 행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

**원의 자유는 미리를  
자유자재로 헤아릴 줄 알았던  
자는 그 미로를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변화시킨다.**

3



section II.

## 소소하 게

BY MYSELF

당신이 만들어가는 그 길에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지난 3월 7일, 원익머트리얼즈는 특별한 상을 받기 위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 방문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에 성실 공시 풍토를 조성한 기여를 인정받아 ‘2018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으며, 공시담당자에게 ‘공시우수유공자’ 표창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공시법인으로 인정받은 상이기에 감회가 새로운 날이었다. 오전에 치러질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걸음으로 찾아온 원익머트리얼즈의 한우성 대표와 권신욱 재무팀 과장을 만나 수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깜짝 놀랐던 한 통의 전화

평소와 같이 업무에 임하던 2월 중순경의 어느 날, 원익머트리얼즈 재무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담당자인 권신욱 재무팀 과장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권신욱 과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오더라도 공시 정보에 무언가 빠졌거나 보완할 점이 있을 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걸까?’하고 잠시 마음을 졸였는데요. 막상 받아보니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죠. 마음 졸이다 들어서인지 수상의 기쁨이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로비에서 긴장과 기쁨이 교차했던 그 날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있던 사이 한우성 대표가 활짝 웃으며 등장했다. 시상식을 알리기 위해 로비에 큼직하게 세워진 배너를 보며 한우성 대표는 반갑게 말을 건넸다.

“배너를 보니 오늘 상을 받는 게 실감이 나네요. 이게 다 우리 권신욱 과장과 재무팀 직원들이 공시 업무를 잘 해서 받게 된 거죠.” 한우성 대표와 권신욱 과장은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행사장이 위치한 대회의실로 이동했다. 이들의 담소 속에 시상식을 앞둔 긴장은 사라졌고 기분 좋은 설렘만 남아있었다.

#### 투명한 경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오늘

이날 성실하게 공시 의무를 다한 12개 기업이 공시우수법인으로 상을 받았다. 법인의 공시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이다. 이에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은 기업들이 이날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것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기업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시에 공시하며 투자자의 신뢰 증진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 어느 하나 거짓 없이 투명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을 늘 강조하는 한우성 대표의 경영방식의 일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과 1년간 연부과금, 상장수수료, 의무교육 이수 면제 등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행사 순서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원익머트리얼즈가 호명되자 한우성 대표와 권신욱 과장이 연단에 올랐다. 한우성 대표는 공시우수법인의 대표로서 공로패를, 권신욱 과장은 공시우수유공자 표장을 받았다.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도 마쳤다. 연단에서 내려갈 때는 수고했다는 의미를 담아 한우성 대표가 권신욱 과장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동안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풍경이었다.

# Q

Q.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번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원익머트리얼즈가 투명한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도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두는구나.’하고 뿌듯했죠.

Q. 그렇다면 한 대표님과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라 생각하시나요?

기업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가 항상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회사의 소식이나 변화를 숨김없이 늘 공유하고, 이 같은 정보는 외부에도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기업의 소식과 정보를 내부에만 숨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투자를 비롯한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내부와 외부 모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직원들이 꼼꼼하게 업무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벌써 1분기가 지났네요. 바쁜 연초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2019년 원익머트리얼즈의 목표를 들려주세요.

기업 특성상 위험을 취급이 많기 때문에 해가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품질과 납기약속에 대한 신뢰. 오늘 상을 받은 바와 같이 기업경영과 정보공유에 있어서도 신뢰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직원들의 미래를 짚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남은 2019년을 잘 일궈나가겠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대표



기업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가  
항상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 Mini interview

Q. 오늘 공시우수유공자로 표장을 받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사 내부에서 받는 상도 의미 있지만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상은 기회가 훈치 않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재무팀의 공시담당자로서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시담당자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상을 받게 된 건 결코 아니고요.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저희 팀원 전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상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팀원 모두가 정말 기뻐했어요.

Q. 평소 공시업무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고 추진한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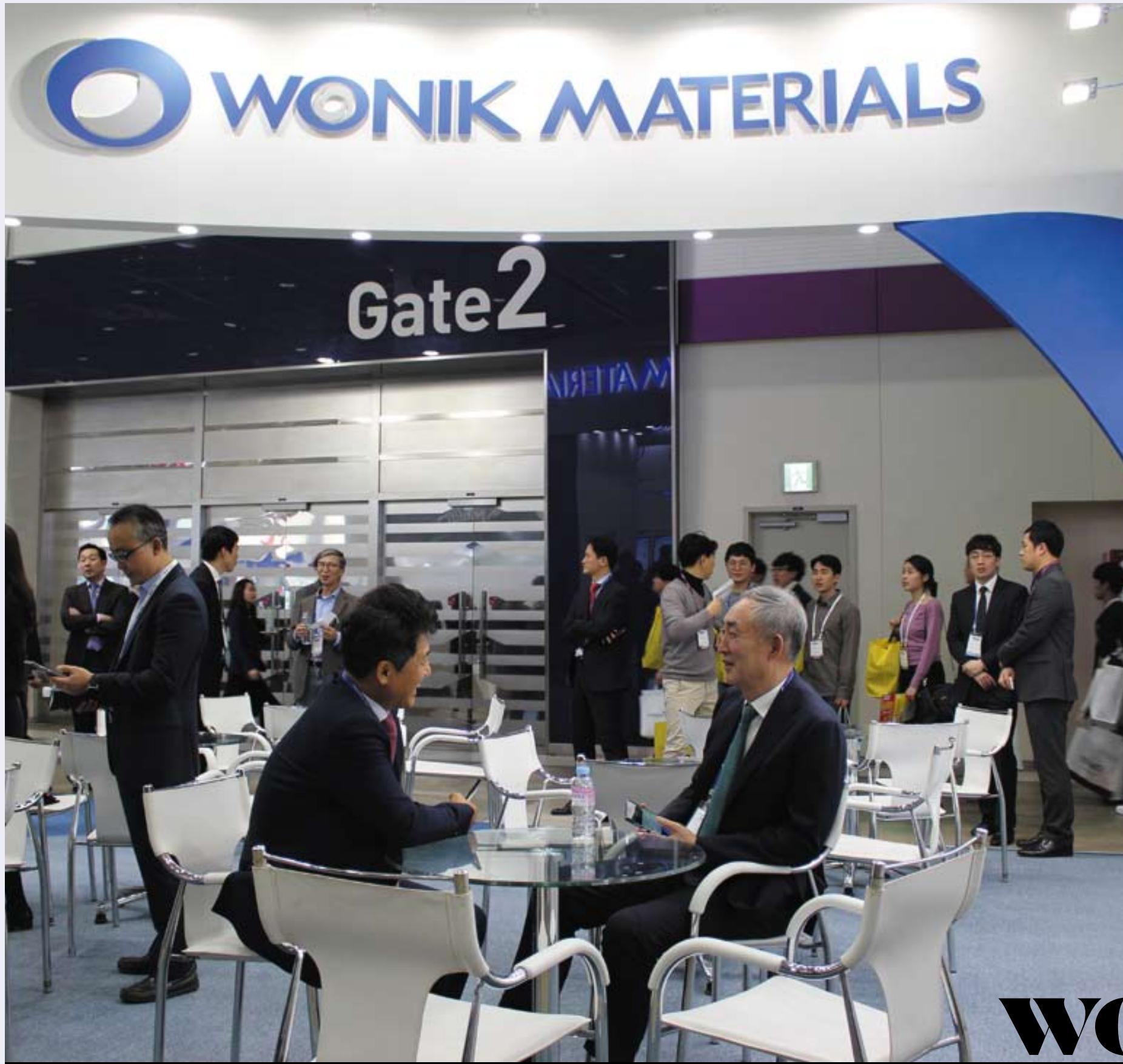
저는 공시를 담당하면서 스스로 ‘소식통’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외부에 알릴 정보가 있다면 빠짐없이 알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원익머트리얼즈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투자를 비롯한 외부의 시선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공시담당자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늘 해왔던 바와 같이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공시해 많은 분들이 원익머트리얼즈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같은 노력이 원익 그룹 전체의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WONIK

원익머트리얼즈 재무팀  
권신욱 과장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더 큰 미래를  
꿈꾸다

반도체 산업인들의 축제, 세미콘 코리아

1987년 처음 개최된 세미콘 코리아는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는 자리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해가 지날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세미콘 코리아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졌고 지난해 4만 8천여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469개의 업체가 2037개의 부스를 열면서 3일간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였다.

이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인 원익도 빠질 수 없었다. 원익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가 부스를 열며 축제에 함께했다. 개막 전, 오프닝 세리머니에서는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SEMI) 국제이사회 회원사인 원익의 회장인 이용한 회장이 축사를 진행하기도. 이 회장은 “개막식 오프닝 스피치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뒤이어 “반도체는 한두 개의 국가나 회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술력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과 더불어 후대까지 반도체 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하고 함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이 회장은 국내 반도체 주요 인사들과 리본 커팅식을 하며 세미콘 코리아의 개막을 알렸다.

WONIK



국내외 반도체 재료 및 장비 업체들이 참여하는 연중 최대의 축제, 세미콘 코리아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이번 세미콘 코리아에 원익의 네 개 계열사도 참여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반도체 기술의 혁신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 진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ICT산업은 소수에 집중되었던 기술과 정보의 가치를 일상의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고, 'AI', '자율주행', 'Cloud', 'Big Data' 등으로 대변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도화된 IT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곧 반도체 산업의 미래입니다.

— 이용한 회장 개막식 축사 내용 중

#### 모두가 주목한 원익의 미래

전시는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들과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로 빨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참관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업체들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떤 장비들이 반도체를 만드는지 알기 위한 관람객, 비즈니스를 위해 찾은 전문가, 세미나를 들으러 온 학생 등 다양했다.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반도체 얼굴들이 보였다. 개막식에서 함께 한 이용한 회장은 물론 원익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의 사우들과 대표들까지 각자의 부스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우들을 격려하고 있던 것.

20부스 이상을 사용한 대형 부스를 구성하며 눈길을 모은 원익머트리얼즈는 한우성 대표가 직접 나서 주력 상품인 특수ガ스와 새로운 장비를 소개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신개념 Yton용기 운반용 스키드가 이번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애심 차게 준비한 제품이다.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상, 하, 좌, 우로 조절이 가능해 현장에서의 가스 운반이 유연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크기의 Yton용기를 장착할 수 있어 효율성까지 보장한다고. 관계자들은 지난해까지 최고 실적을 거뒀던 원익머트리얼즈가 이를 통해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원익아이피에스의 부스 역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반도체 장비에 강한 원익아이피에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의 강자 원익테라세미콘의 합병 소식은 해당 산업계에서도 큰 이슈였고 그 실물을 직접 보고자 하는 업계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 이들은 전시부스 위에 마련된 비즈니스 룸에 모여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비즈니스 연계를 맺기도 하는 등 새로운 원익아이피에스를 적극적으로 맞이했다. 작년 세정사업사 나노원을 인수한 원익큐엔씨도 부스 한편에 나노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의 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부스를 찾은 사람들에게 원익큐엔씨는 나노원 인수로 만들어질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밝은 미래를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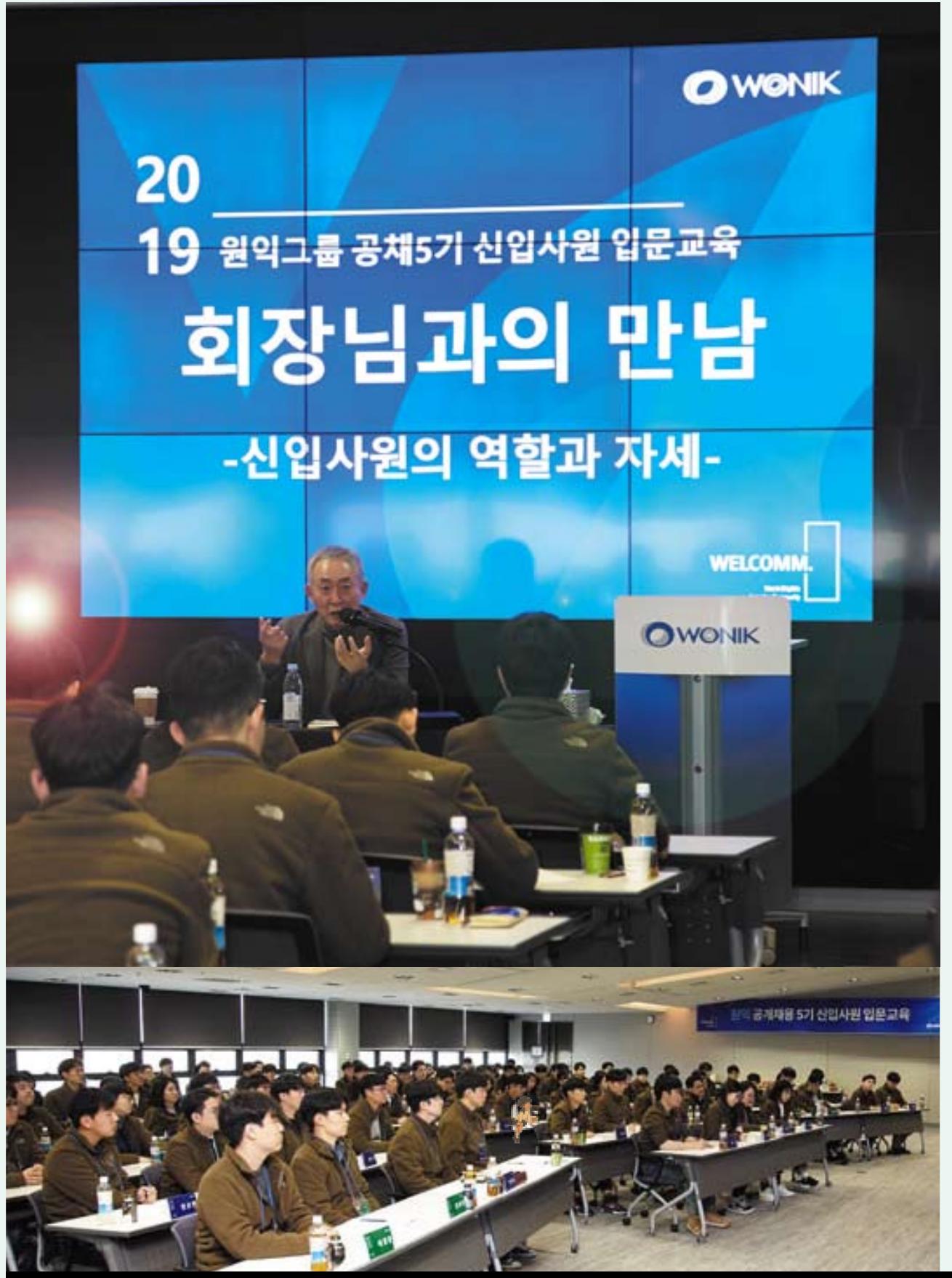
원익의 이용한 회장은 세미콘 코리아 2019 오픈 첫날, 모든 부스를 다니며 사우들을 격려함은 물론 파트너사들까지 직접 맞이하며 끝까지 선봉장의 역할을 맡았다. 이에 각 계열사 대표들과 사우들도 마지막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이들의 협력은 이용한 회장의 오프닝 축사에 나오듯 ‘글로벌한 반도체 산업’을 향한 한 걸음이 되었다.

**WONIK**

원익 공채 5기 입문교육

WONIKIN v.57 — BECOME ONE





## 격려와 감사를 담은 따스함으로 소통하다

### 회장님과의 만남

교육 마지막 주 일요일, 이용한 회장이 교육 중인 신입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평 블룸비스타를 찾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장님을 기다리던 공채 5기 신입사원들은 이용한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큰 박수로 맞이했다. “지난 공채 4기까지는 늘 면접에 참여했으나 이번 5기 면접에서는 함께하지 못해 신입사원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라며 따스한 인사를 건넨 이 회장은 신입사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을지 고민 끝에 민족, 국가 그리고 회사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뿌리를 이해한 뒤 자긍심을 가지고 원익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익의 회장이기에 앞서 인생의 대선배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은 이 회장의 진심이 전해진 듯 신입사원들도 빛나는 눈으로 이 회장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음에 담았다.

이 회장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설명했고 반대로 약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 역설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며 시작된 반도체 사업의 역사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원익의 목표를 전달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 원익은 변화와 함께

지난 1월 2일, 원익 시무식이 끝난 후 95명의 원익 공채 5기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위해 양평 블룸비스타로 떠났다. 18일까지 진행된 교육에서 이들은 원익 핵심가치, 업무 스킬, 비즈니스 매너 등을 배우며 어엿한 원익인으로 거듭났다. 이들의 열정적인 성장기를 따라가 보자.

“좋은 사람이 될 것,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성장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준비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마친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회장은 “나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며 재치 있는 마무리를 했고 이에 신입사원들은 “사랑합니다!”하고 응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서 시작된 질의응답 시간. 긴장한 듯한 신입사원들 사이로 패기 넘치는 손이 뻗어 올랐다. “회장님의 말씀 감명 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회장님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회장은 “하하 그건 내 노하우인데 가르쳐주면 어떡하지?”하며 긴장을 풀어주고는 이내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분위기가 한결 편해지자 질의응답이 속속 이어졌고 이 회장과 신입사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소통은 점심 식사시간에도 계속됐다. 이 회장은 따로 준비된 별실을 마다하고 신입사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이 오늘 나눈 깊고 짙은 농도의 애정 어린 소통은 앞으로 원익인으로서 성장하는 밑바탕이자 한 번씩 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추억이 될 것이다.

원익의 신입사원, 나아가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 Q

일을 하다 보면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갈등,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개인적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순탄하지 않은 삶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마음가짐은 '그저 묵묵히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맡은 바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저희도 회장님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는 누군가 영감을 준다고,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 기업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방향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주변에 접목할 만한 산업이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확장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투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다양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열사 외에도 다른 카테고리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면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아직도 많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익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 혼자 다 쥐고 있었더라면 힘들었겠죠. 저는 제가 일을 맡긴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아마 새로운 회사를 또 인수하고 넓히더라도 우리는 잘 해낼 것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네요.

원익이 작은 회사로 시작해 이만큼 성장하고 다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계열사가 신뢰관계 안에서 위임경영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입사원과 회장님의 현문현답



원익의 회장이기에 앞서 인생의 대선배로서 신입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꼭꼭 눌러 담았던 이용한 회장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들의 등을 받쳐 줄 것이다.

1월 16일 오전 열 시, 양평 블룸비스타 아너스 홀 앞에서 반듯한 정장 차림의 신입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다. 지난 2주간 받은 교육을 토대로 각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원익의 미래를 제안하는 ‘모의 경영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 신입사원들은 계열사별로 조를 나눠 며칠간 고민하며 기획안을 준비했고 이에 선배사원들도 합류해 크고 작은 도움을 주며 격려했다. 이제 그 결과물을 선보일 시간.

## 빛나는 열정으로 원익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다

### 신입사원 발표회 원익인의 밤

발표회가 시작되고 긴장감으로 어쩔 줄 모르던 신입사원들은 단상에 서자 언제 긴장했나는 듯 차례차례 준비한 것들을 선보였다. 더러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눈빛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임원들은 차분히 기다려주었고 다음 발표를 기다리는 신입사원들도 응원의 눈길을 보내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심사는 엄격했다. 임원들은 실제 기획안 회의를 하듯 투자 가능성과 현실화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발표자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연구한 이들은 허를 찌르는 질문에도 곧잘 대답하며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곧바로 사업화해도 되겠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모든 조의 발표가 끝나고 길고도 짧았던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교육에 임해 온 신입사원들은 이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원익인의 밤을 맞이하려 그랜드볼룸 홀로 향했다. 홀에는 그동안 힘써온 모두를 위해 만찬은 물론 즐거운 소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었다. 원익인의 밤은 원익머트리얼즈 김형석 전무의 인사로 문을 열었다. “먼저, 개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행복을 추구하는 원익에 입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까 발표회를 심사하며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에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교육을 완수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라면 충분히 원익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어서 신입사원 발표회 우수 조가 발표됐다. 긴장 속에서 호명된 조는 3위 원익큐브, 2위 원익머트리얼즈 2조. 그리고 영광의 1위는 원익로보틱스가 수상했다. 모두가 큰 호응과 박수로 수상한 조들을 축하했으며 각 조의 조장들은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다음은 신입사원 수료 선물 전달식. 수료 선물은 순금 사원증으로 기획조정실 이호철 전무가 최원태, 최다혜 신입사원 대표에게 전달했다. 두 신입사원은 감격스러운 얼굴로 사원증을 받아들고는 “원익 공채 5기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신입사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며 2주간의 교육기간 틈틈이 제작한 영상을 소개했다. 재치가 담긴 사랑스러운 영상에 선배 사원들과 임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영상이 끝나자 한 명씩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무대로 향했다. 이윽고 모두가 무대에서 하모니를 펼칠 때에는 감동의 물결이 촛불과 함께 일렁였고 선배 사원들과 임원들은 너도 나도 핸드폰 들고 감동의 순간을 간직했다.

훈훈한 분위기는 건배사로 이어졌다. 건배사는 원익아이피에스 김동철 상무가 맡았다. 김 상무는 “사실 작년 공채 4기까지 보면 서 이 이상 더 잘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 놀립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면 글로벌 1등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로벌 1등’하면 ‘할 수 있다, 하자!’고 외쳐주십시오.” 하며 “글로벌 1등!”을 외쳤고 모두가 “할 수 있다, 하자!”고 답하며 파티의 시작을 알렸다. 원익인들은 신입사원, 선배사원 할 것 없이 서로 셀카를 찍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든든한 식사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작된 레크리

에이션. 신입사원들은 패기와 열정으로, 선배들은 노련함으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해 나갔다. 이들은 숨겨왔던 노래 실력과 댄스 실력을 발휘하며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고생한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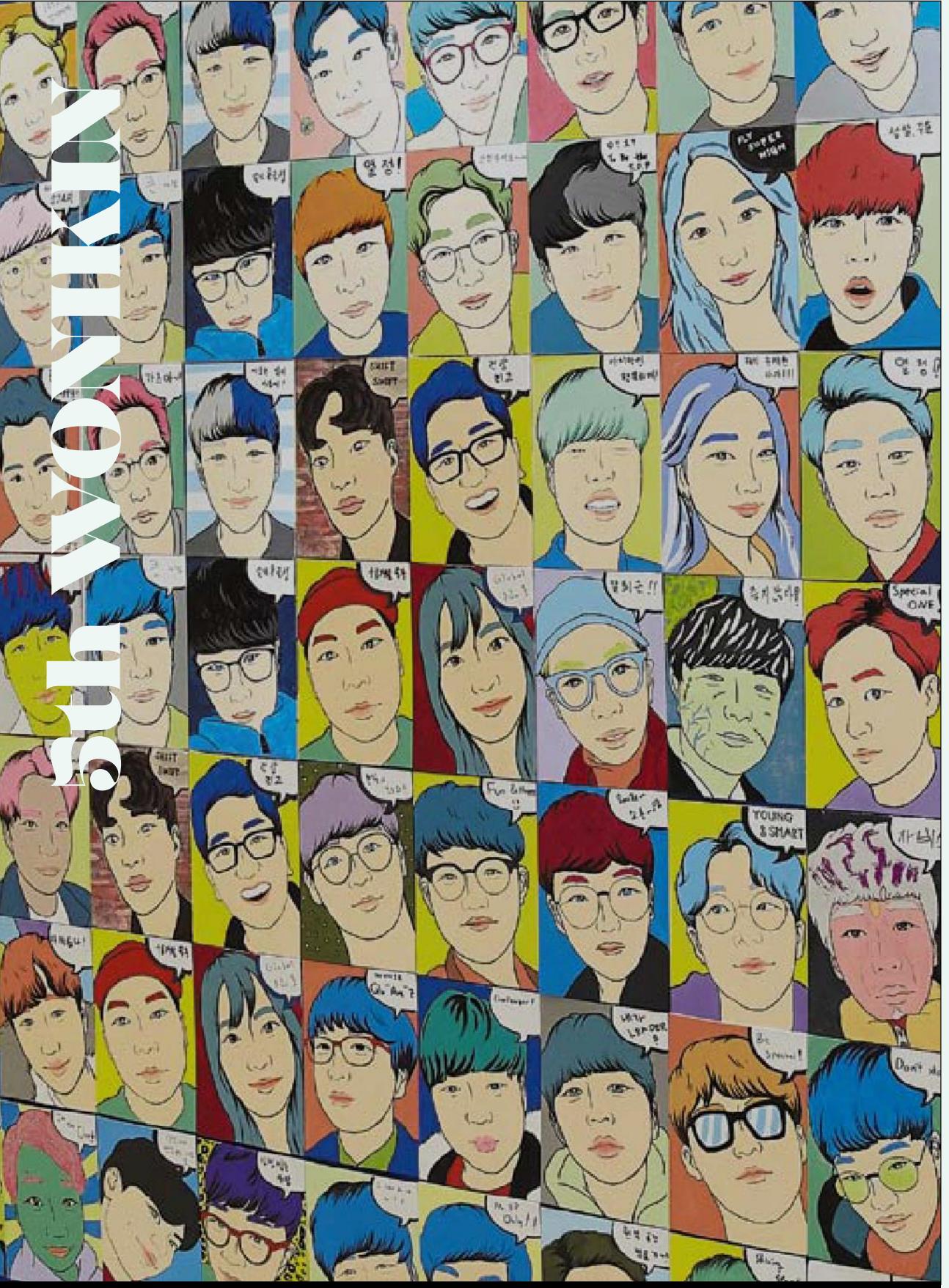
반짝이는 아이디어, 끈끈한 협동심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은 무엇보다 빛나는 작품이다.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낼  
이들의 미래,  
원익에서 시작된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원익이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새내기 직장인으로 원익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원익 공채 5기.  
이들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는 설렘과 기쁨으로 힘든 시간도  
아랑곳 않고 모두가 끊임없이 원익인으로의 첫걸음을 떴다.  
온 마음을 다해 교육을 완수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라면 충분히 원익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 **WONIK**



# 기업 가치에 '청렴'을 더하다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봄기운이  
성큼 다가온 3월 초, 평택직할세  
관에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날 모  
범납세자로 수상 예정인 7인 중  
한 명은 이현덕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였다. 특별하게도 일일 명예  
세관장 체험까지 예정돼 있던 이  
현덕 대표는 “그동안 잘 몰랐던  
평택세관의 업무와 많은 분들의  
노고를 배울 좋은 기회”라며 설렘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이현덕 대  
표를 비롯해 원익아이피에스 직  
원들, 세관 간부들 모두 화기애애  
했던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현장  
을 담아봤다.

제53회  
기  
회  
재  
정  
부  
장  
관  
표  
장  
수  
상  
자

## 봄꽃처럼 기분 좋은 소식

3월 4일 아침, 평택직할세관(이하 평택세관)에는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준비로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다. 몇몇 세관 직원은 제복을 갖춰 입었고, 편안하게 세관 유니폼을 입은 직원도 많았다. 잠시 후 기념식을 시작한다는 안내에 들뜬 분위기로 담소를 나누던 이들이 자리에 착석했고, 대강당 내부가 빼곡히 메워졌다. 이른 시간 시작된 일정과 접전에 긴장할 법도 한데 이현덕 대표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만연했다.

이번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평택세관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한 이현덕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에게 기회재정부장관 표장을 수여했다.

평택세관은 1991년 창립 아래 세계 최초로 ALD장비 양산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 분야의 핵심기업으로 원익아이피에스를 소개했다. 장비 개발에 필요한 물자수송을 평택세관을 통해 활발히 진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납세를 실천했다는 평이다.

수상자들이 한 명씩 호명되고 수상 사유가 발표될 때마다 강당 내부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모범납세 수상자는 이현덕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이었다. 이현덕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자 원익아이피에스의 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하자 이현덕 대표는 활짝 웃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좋은 자리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직원들 역시 대표를 비롯해 원익아이피에스 임직원 모두가 달성한 모범납세 수상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다.

성실하고 투명한 납세로 기업 신뢰도 다진  
이현덕 원익아이피에스 대표



**‘모범납세자 수상’**

기념식을 마치고 이날 이현덕 대표는 일일 명예세관장 체험을 위해 세관장이 어깨띠를 손수 둘러줬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나마 이현덕 대표가 온전히 세관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집무실로 돌아갔다. 이현덕 대표는 하루 동안 세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관 현황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수출입 물품들이 가득 메워진 세관 풍경을 둘러보고 평택세관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경청했다. 비연고자의 비율이 높은 평택세관에서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편의시설을 소개할 때는 마치 원익아이피에스의 직원복지에 골몰하듯 눈을 반짝였다.

현황 보고를 마친 후에는 평택세관 간부들과 한명한명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일일 명예세관장이지만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세관 간부들도 모범납세자로 방문한 이현덕 대표를 믿음직한 표정으로 응대했다.

# WONIK IPS



“저희 원익아이피에스가 평택세관을 통해 반입·출 업무가 다수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항만 내 세관을 제대로 방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평소 해외 출장 시 공항에서 세관 업무를 잠시 지켜본 게 전부인 제가 이렇게 명예세관장을 체험해도 되나 우려도 되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주신 기회는 그동안 잘 몰랐던 평택세관의 업무와 많은 분들의 노고를 배워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배운다는 입장으로 명예세관장 업무에 즐겁게 임하겠습니다.”

겸손하면서 솔직한 이현덕 대표의 소감에 또 한 번 세관 간부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위촉식을 마친 후 이현덕 대표는 평택세관의 구석구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종합상황실로 이동했다. 감시과장과 납심과장은 세관 곳곳에 설치된 CCTV로 감시가 어려운 야적장이나 선박주변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현덕 대표는 치밀하고 열정적인 감시시스템에 감탄했다. 또 세관 간부들은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재미있는 사례와 직원들 사이의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다같이 웃음을 피웠다.

#### 자부심이 무력무력 피어오른 하루

다음으로 여객터미널 내 휴대품과 순시, 제2컨테이너 검색센터로 궁금한 점은 즉시 질문하며 진지하게 체험에 임했다. 일일 명예세관장 체험을 모두 마친 이현덕 대표는 “관세청 입장 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은 계기였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안문철 평택직할세관장은 “내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하루 일정을 마치며 평택세관 정문에서 이현덕 대표와 안문철 평택직할세관장과 여러 세관직원들이 모두 모여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파이팅을 외칠 때 모든 이의 얼굴에 봄처럼 해사한 웃음이 가득했다. 모범납세자의 자부심을 기반으로 한 원익아이피에스의 밝은 앞날과 같았다. ————— WONIK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  
김구종 과장

합병 후 새롭게 탄생한 회사에서 교육 및 조직문화 기획 담당

##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명강사

1987년 순수민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HRD협회는 한국교육을 대표한 최고의 기관이 되어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체, 교육기관 연수원, 교육전문가 등에게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최고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명강사)』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상을 수상한 사람 중 역대 최연소 수상자이며, 원익인 최초로 수상한 원익IPS 김구종 과장을 만나봤다.

2019  
대상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  
시상식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반성이 되어 앞을 향하게 하지만,

하지 않고 하는 후회는  
미련이 되어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

### 교육이 기어코 빛나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친구 결혼식 사회부터 지인들 모임에 강의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강의는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업으로 삼은 일이기도 하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 봉사활동처럼 하다보니 더 많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기회들 중 몇몇 대회도 있어서 참가하게 되어 이런 과분한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 함께 결국 성장하다.

개인은 회사가 투자(월급)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회사는 개인이 공급한 성과가 투자를 초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달성한 원인이 개인역량 부족이라면 개인은 스스로 역량개발을 하고, 회사는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가성비'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인 '효율'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성과' 뿐만 아니라 '투자'도 중시 여기는 거죠. 무조건 아낀다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성과를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정선에서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테니 교육에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하) 좋은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과 하찮은 저를 이렇게 사보까지 오르게 도와주신 팀장님 및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교육&조직문화를 기대해달라는 말을 우리 원익아이피에스 직원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사실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게 없다. 새로운 이론 배워야지, 그것에 맞춰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야하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패러다임만 바꾼다면 스스로 변화하는 우리의 노력하는 삶도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WONIK

WONIK IPS



우리회사는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부서별 해당  
근무제도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 52시간(1주  
기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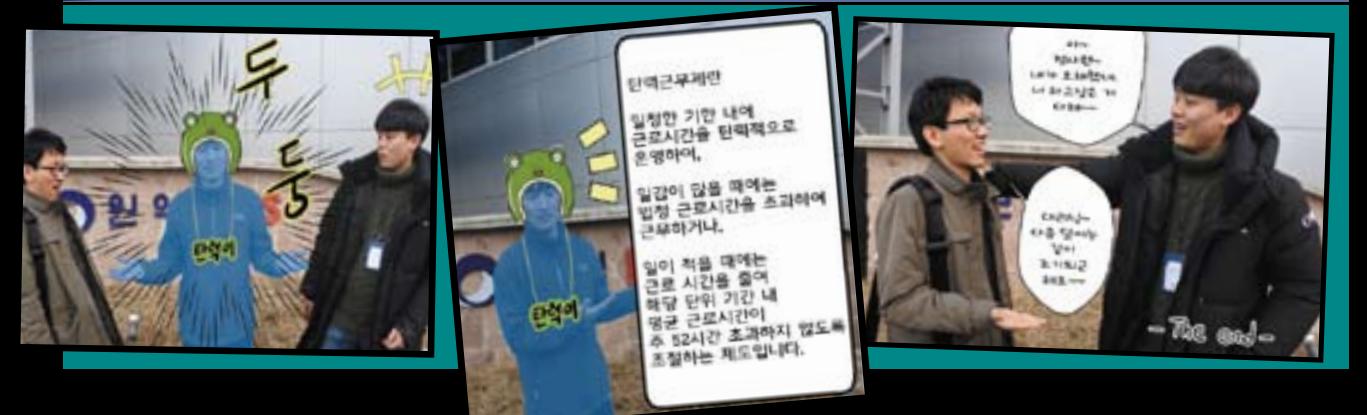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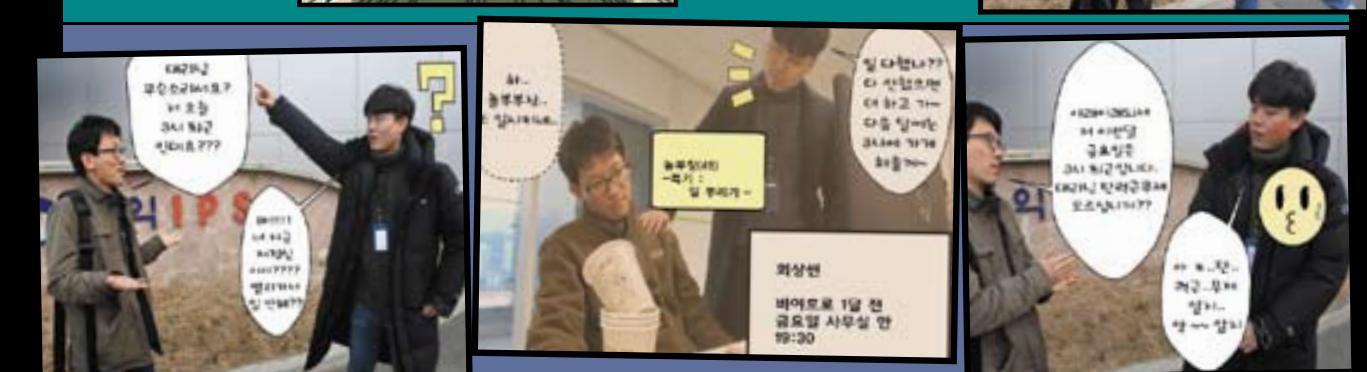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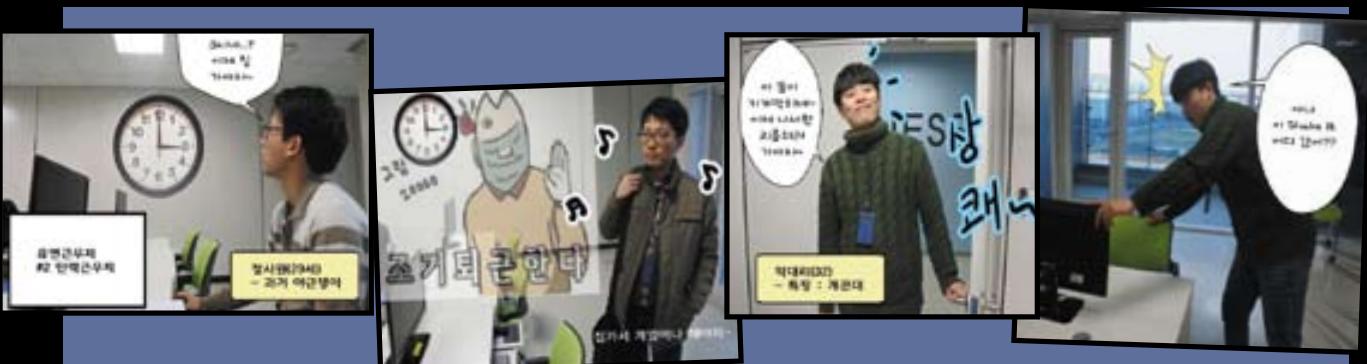
만든 사람들



Episode 1. 선택 근무제 편



Episode 2. 탄력 근무제 편



#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는

## Google 시스템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4월 19일, 원익아이피에스 대강당에서 구글코리아 마케팅솔루션본부 김경훈 전무가 <글로벌 리딩 회사의 일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기업의 전략과 성공 사례의 대상으로써 지금까지도 가장 혁신적인 룰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구글의 경영 방식과 미래지향적인 면모를 실증적인 데이터와 함께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경훈 전무의 특강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구글의 면모를 파악하고, 특히 인재 선발과 양성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1998년 9월에 탄생한 구글은 2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젊은 기업이다. 검색엔진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젊은 시일에 거의 전 세계의 인터넷을 석권했고,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매일마다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며, 그들이 내놓는 소식 하나하나에 귀기울인다. 놀라운 것은, 구글은 지금껏 한 번도 평범한 기업인 적이 없었다.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재 채용·육성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 조직형태 등 기업모델로써 구글은 배울 점이 매우 많다. 구글은 초창기 때 일하는 방식과 현재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 즉 창업 이래 고수해왔던 원칙은 ‘직원의 권한’에 자유와 책임을 주고 ‘열린 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원의 역량 특히, ‘관리자의 역량 강화’에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구성원에게 많은 권한을 심어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개인보다는 조직으로 뭉쳐야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조직에는 더러 직원이 관리자보다 우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권한을 주어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는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없애는 것이다. 호칭, 자리, 순서(출퇴근, 식사 등), 의견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사내 정치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것,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직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과 직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칭찬과 피드백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칭찬과 격려는 물론, 권한 밖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너스와 SPOT BONUS(격려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관리자 역량 강화로 더 강한 조직을 만든다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창기에 구글은 ‘관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는 목표로 조직력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훌륭한 관리자가 조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증명됐다. 구글은 프로젝트 종료 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관리자는 다음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좋은 관리자는 스스로가 좋은 코치이며, 권한을 직원에게 넘기고 이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직원의 성공·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결과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정보 청취·공유에도 열심이다.

그리고 직원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려 하고, 조직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며,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기술 능력을 갖추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

WONIKIN

# Objective and OKR Key Results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직원에게 더 많은 신뢰와 자유, 권한을 부여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아직 직원에게 충분히 많이 주지 않은 것이다.



혁신이란 갑자기 번뜩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구글의 ‘아이디어 메일링리스트’는 회사 전체 규모의 ‘제안함(BOX)’이다.  
주차 규칙에서부터 미래의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까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제안할 수 있으며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는 최고경영자에게 전달된다.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채용에 있어서 조직의 자원이 제한돼 있다면  
교육과 투자보다 채용이 우선이다.  
그리고 인재 채용은 전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리딩 회사의

일하는  
방법

공정한 성과 관리로 개인의 성장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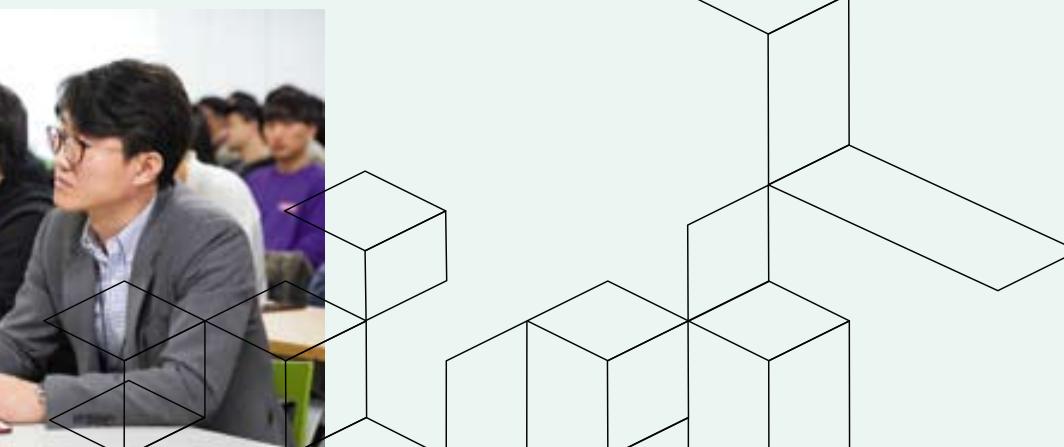
성과 관리는 더 나은 실적과 성장을 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으로 직원의 성공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평가와 보상이 아니라 직원에게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책임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성과 관리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회사의 전략 방향과 일치하는 목표 설정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입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실적이 필요하며, 매 분기에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목표 설정과 회사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고, 동료들의 교차 평가를 수집해 하나의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 판정은 구성원 집단이 모여 결정하고,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등급을 보정한 다음, 공통된 목표 기대치를 반영한다. 관리자는 해당 직원의 지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하고, 앞으로 무엇을 함께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여기에는 평가 관련 대화와 개인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관련 대화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칫 개인적인 선입견이 끼어들어 피드백 자체가 모호해지고, 목표 의식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ONIK



107

원익홀딩스

평택시장 원익홀딩스 방문  
SK하이닉스 “도전 산업안전 골든벨” 2등 수상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HGFC, 경기도 안성에서 첫 담금질



109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 & 원익테라세미콘 합병  
서안법인 개소식  
2019년 Appreciation Day 행사  
승진자 교육  
2019 SEMICON CHINA 참가

111

원익마트리얼즈

봄 맞이 ‘봄 꽃놀이와 피크닉’  
2019년 1분기 전사 Company Meeting & Movie Day  
직책자 리더십 교육  
2019 SEMICON CHINA 참가

113

원익큐엔씨

현장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시행  
한계돌파 프로젝트 Kick-off

114

원익

(주)원익의 변화하는 소통광장  
서울사무소 설립

# NEWS FOCUS



115

원익큐브

데모센터 오픈하우스 개최  
실리콘 공장 오창 이전  
임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변화관리 조직 “Change Agent”

117

씨엠에스랩

2분기 타운홀 미팅

자유 - 주도성° 스스로의 변화 by Myself  
WONIK GROUP MAGAZINE 2019 VOL. 58 SPRING



117

원익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클래스팅 MOU 체결  
창원NC파크 로봇 애디 도입  
자율주행의 핵심, ‘라이다 센서’

119

하늘물빛정원

볼링동호회 “볼링볼링” 첫 모임  
“드디어봄” 툴립 축제 개최

## 원익홀딩스

01



02

## 평택시장 원익홀딩스 방문

평택시 정장선 시장 일행이 원익홀딩스 자체 본사를 방문하였다.

금번 평택시장 방문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확대에 모범이 되고 있는 원익홀딩스를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는 신규 사옥 이전과 관련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원익홀딩스의 평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로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원익홀딩스가 더욱더 발전하여 시의 경제발전에 더 큰 이바지 하기를 기대해 본다.

## SK하이닉스 “도전 산업안전 골든벨” 2등 수상

SK하이닉스 SUPEX홀에서 진행된 “도전 산업안전 골든벨 : 더 안전합시다”에서 원익홀딩스 환경안전팀 박진석 대리가 2등을 차지했다. (1등은 SK하이닉스, 3등은 한양기공). 최초 참가 인원을 280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총 348명이 참가하여 이번 수상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행사는 1시간 40분동안 진행되었으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671개 조항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직군 담당자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역량을 점검하고, SK하이닉스와 BP사들의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재고하는 자리였다.

골든벨에서 2등을 수상한 박진석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산업안전법을 기반으로 한 현장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또 늘 아낌없이 업무에 도움을 주는 팀원들과 현장업무 수행시 잘 도와주시는 고객지원팀 및 ENC본부 분들에게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같이 참석한 이성필 부장도 장려상을 수상하여 원익홀딩스의 위상을 함께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요즘, 현장 안전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원익홀딩스 직원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

107



###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원익홀딩스가 2019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기존처럼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인사팀 정육진과장이 직접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자격증을 취득, 교육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를 작성하여 임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은 외부강사가 할 때와 달리, 인사팀에서 진행하다보니 직원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부드러운 진행으로 재미까지 선사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을 들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익숙한 분이 들어와서 교육을 해주니까 집중도 잘되고, 귀에 쑥쑥 들어왔다”, “민감한 주제의 교육을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신 점이 이해를 도왔다”며 교육후기를 전하였다. 해당 교육을 진행한 인사팀 정육진 과장은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과 달리 인사팀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 비용 절감도 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자리였다. 인사팀의 역량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서 좋다”라며 부끄러운 소감을 전하였다.

### 원익홀딩스

03



### [핸섬가이즈FC] HGFC, 경기도 안성에서 첫 담금질

올해 1월 창단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한 핸섬가이즈FC(이하 HGFC)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풋살매니아 실내경기장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가지며 첫발을 뗐다. 이날 이상훈 단장과 주장 김정운을 비롯, 총 15명의 선수단이 모여 서로 발을 맞쳤다. A, B, C팀 3개조로 나눠 5인제 경기로 진행된 훈련에서는 B팀과 C팀의 활약이 돋보였다. 무려 11.7km를 뛰며 2도움을 기록하여 기자단이 뽑은 ‘맨오브더매치(Man of the Match)’에 선정된 B팀의 임상범 선수 “그저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었을 뿐이다. 동료들과 호흡이 좋아 재밌게 즐겼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며 훈련을 지도한 이상훈 단장은 “금요일 오후임에도 많은 인원이 훈련에 참가했다. 비록 겨울 휴식기로 인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지만, 워낙 기본 기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 않는다. 체력은 서서히 끌어올리면 된다. 첫 출발치고는 느낌이 참 좋다.” 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6 슈팅, 2 유효슈팅, 1 득점을 기록한 A팀의 소병오 선수는 “지금 까지 이런 구단은 없었다. 이것이 축구팀인가, 가족인가 혼동될 정도다. 훈련 분위기가 너무 좋다. 단장님께서 경기 중 실수가 나오거나, 시합에서 지더라도 자신있게 하라고 지도해주신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단 전부터 과감한 행보로 국내 축구계에 많은 이목을 집중 시킨 HGFC, 첫 자체 훈련을 통해 경기력과 팀워크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그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04



### 원익아이피에스 & 원익테라세미콘 합병

원익아이피에스와 원익테라세미콘이 지난 2월 1일부로 합병되어 원익아이피에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번 합병은 작년 10월 각 사 이사회의 합병계약 승인 이후 12월 1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 결정되었다. 합병계약에 따라 원익테라세미콘은 공식적으로 소멸회사가 되었으나 원익아이피에스가 원익테라세미콘의 자산, 부채, 권리의무를 비롯하여 기존 사업과 임직원을 그대로 흡수합병하는 형태이기에 두 계열사가 합쳐져 커다란 한 가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익아이피에스와 원익테라세미콘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Solar Cell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 장비 회사로 사업 포트폴리오는 동일했으나 원익아이피에스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원익테라세미콘은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에 각각 강점이 있었다.

이번 합병으로 더욱 국내 최고의 종합 장비회사의 위치를 견고히 다지게 된 원익아이피에스는 앞으로 기술의 수직적·수평적 확대, R&D Infra 확대 및 역량 강화, 해외 영업 및 고객 대응력 강화, 재무 안정성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Global TOP 10 종합 장비회사로 도약하고자 한다.

### 원익아이피에스

01



### 서안법인 개소식

중화권 Business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는 국내 법인의 합병에 발맞춰 지난 3월 19일 서안지역에 통합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는 기존 원익아이피에스 서안법인 소속 인원 26명과 기존 원익테라세미콘 서안법인 소속 인원 10명 외 국내에서 축하를 전하러 방문한 임직원들이 모여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축하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리본 및 케이크 커팅식으로 시작했으며 진급자 발표와 함께 서안 법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격려의 말을 나누면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서안법인이 원익아이피에스의 향후 중국 진출에 있어 중요한 초석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 원익아이피에스

03



### 2019년 Appreciation Day 행사

매년 협력사를 초청하는 Appreciation Day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Appreciation은 감사와 공감이라는 의미로 원익아이피에스의 동반자인 협력사 대표를 모시고 원익의 가치를 나누며 지난 한 해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올해 8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당사 사업부별 Business 현황과 전망, 그리고 준법경영 및 품질경영 방침을 소개하고 우수 협력사 시상과 협력사 의견 청취(VOC)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Appreciation 행사는 원익테라세미콘과의 합병에 따라 초청 협력사가 작년 46개사에서 62개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상업체도 7개사에서 11개사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최우수상 1개사와 우수상 10개사에 상이 수여되었다.

이와 같이 협력사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가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함께 승승장구 하며 좋은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04



### 승진자교육

매년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 및 리더십 강화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대리, 과장, 그리고 부장을 포함하여 총 135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평택에 위치한 경동 인재개발원에서 총 6차수에 걸쳐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서 대리 승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 주도성 강화와 후배 육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였고, 과장 승진자는 성과관리, 갈등관리 및 코칭스킬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자는 변화 관리와 동기부여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승진자 교육이 교육대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평소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타 부서 직원들과도 새롭게 교류하며 회사 내 인적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승진을 통해 어깨가 조금은 더 무거워진 교육 대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멋진 활약을 해주길 바란다.

05



### 2019 SEMICON CHINA 참가

2019 세미콘 차이나가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 신국제센터홀에서 진행되었다. 세미콘차이나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열리는 박람회로서 반도체 관련 제품, 브랜드, 기술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자리이다.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인 원익아이피에스는 매년 세미콘 차이나에 부스를 마련하여 중국 내 잠재 고객사 관계자들에게 장비와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원익홀딩스와 함께 공동부스를 준비하면서 작년보다도 한층 세련된 시설로 많은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세미콘 차이나는 마무리되었지만 향후 유사한 박람회인 9월 세미콘 타이완, 그리고 10월 반도체대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원익아이피에스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많은 business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원익마트리얼즈

01



### 봄 맞이 '봄 꽃놀이와 피크닉'

따스한 봄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4월, 원익마트리얼즈는 점심시간을 여유있게 이용하여 부서별, 조직별로 삼삼오오 봄 꽃놀이를 다녀왔다.

이번 봄 꽃놀이는 각 부서별로 자유롭게 계획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한 봄 나들이 행사로 직원들은 미리 맛있는 피크닉 도시락을 주문하여 근교로 (판교 직원은 서울대공원, 오창/전의 직원은 오창 호수공원, 청주 수암골 등) 떠났다. 도란도란 식사를 하고 나들이를 떠난 직원들은 잠시나마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4월 '봄 꽃놀이 & 피크닉 도시락' 나들이를 시작으로 동호회와 함께하는 '데이', 5월에는 부서별 사진촬영을 함께하는 'Shall We Picture', 7월에는 전 직원이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팀을 이루어 떠나는 1박 2일 워크샵 '함께하는 우리' 등 자유, 소통, 행복을 실천하고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 및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직원들이 직접 행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행사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양방향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 및 운영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익마트리얼즈를 기대해본다.

## 원익머트리얼즈

02



2019년 1분기 전사 Company Meeting & Movie Day

4월 4일, 청주 오창 메가박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1분기 Company Meeting과 Movie Day 행사가 진행됐다. 컴퍼니 미팅은 매 분기 진행되며 각 부문 우수사원 격려 시상, 사내 뉴스와 경영현황 공유, 대표이사 메시지 등 다양한 소식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 기존 사내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컴퍼니 미팅과는 다르게, 미팅 후 단체 영화관람을 함께하는 콘셉트로 작년부터 무비데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원익머트리얼즈만의 이색적이고도 뜻 깊은 행사 중 하나이다. 1분기 제조, 안전, 기업문화부문 우수사원 시상을 시작으로 컴퍼니 미팅은 시작됐다. 다음은 기업소식으로 CFO의 경영현황 공유, 이후 연간 행사와 교육 등 사내 뉴스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선포문 낭독 및 임직원의 참여 의지를 다짐하는 가운데 ‘준법경영 도입’이 선포되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법규 또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립하고 머트리얼즈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시도로 임직원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함께 본 영화는 ‘캡틴 마블’이라는 액션 영화였다. 임직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를 즐기고 몰입하며 단련한 한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내 주요 소식을 공유하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직원들, 소소한 리프레쉬를 통해 업무내외적으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

03



직책자 리더십 교육

올해 교육훈련의 메인 주제는 ‘직책자 역량강화’로, 그 첫 시작을 지난 4월 17일 용인 지수원 연수원에서 31명의 팀장, 파트장을 대상으로 ‘직책자 리더십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리더십강화의 시작으로, 조직관리, 사람관리, 성과 관리 등의 테마로 짜임새 있게 진행 됐고, CEO 한우성 대표이사와 CFO 김형석 전무가 각각 진행한 세션에서는 팀 리더로서 마인드를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과정의 마무리는, 리더십 실천을 위한 ‘Team Posting Card’를 직책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카드는 1) 계속해 줄 것, 2) 하지 말 것, 3) 앞으로 해주면 좋겠는 것 등 진솔한 팀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겨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팀원들이 바라는 팀장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본인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교육에 참여한 생산관리팀장 전영성부장은 ‘17년 입사 후, 자사 직책자교육은 처음으로 참석하였는데, 다른 직책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팀원들을 이해하고 팀 리더로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이번 리더십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5월 임원리더십교육, 6월 면접관실습교육 및 하반기 리더십온라인교육 등 2019년도에는 고도화된 교육훈련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리더십역량이 강화되고 우수한 성과가 지속되어 원익머트리얼즈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 원익큐엔씨

01



현장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시행

2월 현장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시행하였다. 최근 현장 기능직 신입사원들이 다수 입사하면서 파트장/조장 등 현장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에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하여 ‘감성코칭 및 조직활성화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해당 교육에는 60여 명의 현장 중간관리자가 전원 참석하였으며, 30명씩 2월 13일과 20일 양일로 나누어 인근 금오산 호텔에서 1일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활성화, 현장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감성 코칭 리더십 이해하기, 공감 후 코칭하기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 실습, 토론,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과 타인과의 성향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코칭 상황극을 통해 평소의 모습을 반성하고 개선해 보았다. 교육생들은 강의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타 부서 동료들과 후배 사원 코칭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쁜 업무로 인해 외부 교육 참석이나 함께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현장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당 인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젊은 교육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람 간, 세대 간 이해를 통한 사내 소통 활성화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02



한계돌파 프로젝트 Kick-off

3월 12일, 한계돌파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한계돌파 프로젝트는 계정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낭비요인(COPQ)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비용절감 활동으로 삼성전자의 전문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한다. 원익큐엔씨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 비용절감을 통하여 제조 경쟁력과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계돌파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1차적으로 2019년 말까지 40억 원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복리후생이 저해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현재 전사적으로 45건의 절감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연간 36.7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횡 전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 중이다. 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는 ‘과거 3년간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며 ‘이제는 성장과 동시에 뒤를 돌아봐야 할 시기로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프로세스 혁신과 업무 개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익큐엔씨는 이번 한계돌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Global No.1, Great Company’로 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익**

01

**(주)원익의 변화하는 소통광장**

(주)원익의 소통광장이 변화하고 있다. 소통광장은 (주)원익의 모든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영현황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첫 번째, 경영실적 발표시간에 10분 제한을 두었다. 실적발표는 경영현황의 임직원 공유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칫 그 시간이 길어지면 사내 분위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실적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음악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실적발표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소통광장을 사내 동호회 활동과 연계하였다. 한 달에 하루, 소통광장을 위해 한데 모인 임직원은 소통광장 종료 후 3시부터 공식적으로 각자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모든 임직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각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소통광장 내에 ‘응원’과 ‘소통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응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적에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을 찾아내어 해당 사업팀장이 직접 칭찬하고 응원하는 코너로, 각자의 팀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한 노력을 서로 알아주는 의미에서 신설된 코너이다. ‘소통연습’은 의사표현, 아이디어 제안이 자유로운 활기찬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코너로, 나만의 맛집 추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거나, 캠핑 같은 취미생활을 발표하는 등 부담 없는 주제를 통해 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코너이다. (주)원익은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02

**(주)원익 서울사무소 설립**

2019년 4월 1일, (주)원익의 서울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씨엠에스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계열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현재 씨엠에스랩 본사가 있는 강남대로 브랜드칸타워로 사무실 위치를 정하였다. (주)원익은 지난 10월 22일 일본 색조화장품 No.1 브랜드 후로후시 (FLOWFUSHI)를 국내 메이저 온라인몰과 올리브영을 통해 공식 론칭하였다. 해당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메틱 사업팀은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서울사무소 근무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캐치하는 한편 씨엠에스랩과의 협업을 통해 코스메틱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원익큐브**

01

**데모센터 오픈하우스 개최**

3월 19일 원익큐브와 한국HP가 데모센터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원익큐브 PnP사업부는 작년 6월 뚝섬 사옥으로 이전 후, 라벨과 연포장 분야에 특화된 인디고 데모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원익큐브 데모센터 오픈하우스에는 HP 인디고 6900 디지털 프레스가 설치되어 언제든 시연을 진행할 수 있고, 최신 인디고 장비들로 제작한 라벨과 연포장, 패키지, 출판, 포토 등 다양한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자간담회와 한국 HP 이현송 과장의 인쇄시장 동향 및 인쇄 트렌드에 대한 발표와 함께 HP 인디고 6900 디지털 프레스에 적합한 라벨과 연포장 인쇄분야 고객들을 초청해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PnP사업부 윤경훈 부장은 “이번 데모센터 오픈하우스와 함께 원익큐브는 본사와 김포, 인천에 있는 부품, 소모품 창고와 실시간 협력 가능하고 콜센터, 대구 서비스 센터 충원 등을 통해 전국 150 여대 인디고 장비의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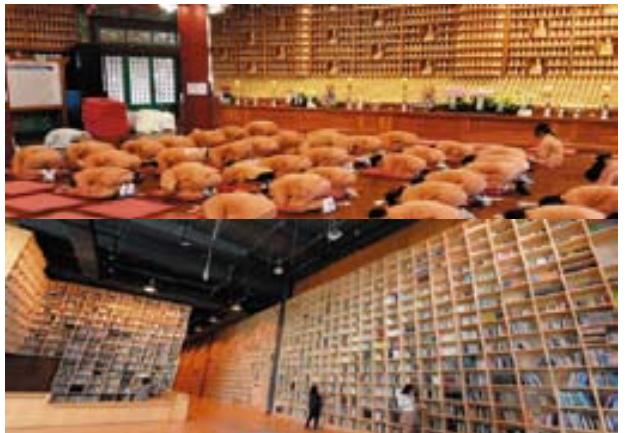
**실리콘 공장 오창 이전**

1월 매출증대 및 사업확대를 위한 실리콘공장 준공 이전을 완료했다. 원익큐브는 2005년 공장 설립 후 점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으며, 마침내 충북 오창에 자가공장을 설립하여 이전을 마쳤다. 신규공장의 제조시설 면적은 1,887m<sup>2</sup>, 부대시설 면적 2,165m<sup>2</sup>으로 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신규공장의 생산능력은 기존보다 80% 향상된 월 630톤에 달한다. 공장 외부에는 폴리머 탱크가 준공 되어있으며, 생산파트 반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했다. 원익큐브 담당자는 “실리콘 생산역량 강화로 고객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오창공장에는 생산팀과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쾌적해진 근무환경과 기숙사에 업무 만족도가 높다는 전언이다. 특히, 회의실 수용인원이 늘어나 정기적인 현장안전관리 교육과 품질교육이 가능하다. 원익큐브의 향상된 실리콘 품질과 강화된 생산능력으로 2019년은 장기성장으로 향도약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

## 원익큐브

03



### 임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원익큐브는 지난해부터 임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 도입된 힐링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북스테이, 힐링스테이 3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템플스테이는 강남구에 위치한 봉은사에서 진행한다. 평일에는 휴식형, 주말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체험형 텁풀스테이는 다도, 참선 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고, 휴식형 텁풀스테이는 개인 휴식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북스테이는 파주시에 위치한 지지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지지향은 책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컨셉으로 도서관과 숙소를 결합해 놓은 호텔형 게스트 하우스이다. 책실을 포함한 건물 내 모든 장소에 TV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지향에는 20만권 이상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원익큐브 임직원은 지지향에서 1박 2일간 자유로운 독서와 사색이 가능하다.

힐링스테이는 강원도 홍천과 충북 충주에서 트래킹, 명상, 짐짓방, 스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 핸드폰 전파 수신 불가지역에 소재하여 전자기기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가능하다. 무역팀 김미선 과장은 “바쁜 일상에 속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04



### 변화관리 조직 “Change Agent”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Change Agent를 운영하고 있다. Change Agent는 조직 내 현안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변화관리를 주도한다. 현재 열정적으로 회사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11명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Change Agent는 매월 1회 지정된 장소에 모여 핵심가치, 행동양식, 소명의식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특히, 지난해 Change Agent는 원익큐브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을 도출하였다. 원익큐브 에티켓 캠페인은 1월부터 전사 시행되어 사무공간 곳곳에 에티켓 포스터가 부착됐다. 이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업문화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Change Agent는 핵심가치에 기반한 원익큐브 Do & Don't를 정립했다. 원익큐브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핵심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Ownership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Change Agent의 2019년 목표이다. Do & Don't는 2분기에 전사 공지될 계획이다. Change Agent 구성원들은 “회사의 변화관리에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Change Agent 활동을 통해 원익큐브의 기업문화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 씨엠에스랩

01



### 2분기 타운홀 미팅

4월 9일 2분기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었다. 씨엠에스랩의 소통 프로그램 하나로 경영현황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형식, 주제, 프로그램 내용이 임직원들의 의견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 달 전 설문조사를 통해 ‘다뤘으면 하는 주제?’ ‘회사관련 질문 사항?’ ‘타운홀 미팅의 운영방식, 장소 등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다. 설문조사 결과 ‘브랜드의 방향성’, ‘신제품 판매 추이 및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직원구매 할인폭 증대’, ‘동호회 활동 지원 요청’, ‘공기청정기 설치 요청’까지 다양한 질문 및 건의사항이 집계 되었다. 부문의 팀장들과 대표이사는 타운홀 미팅 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인사팀에서는 건의사항들의 대안 준비·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문 결과, 주제는 ‘책임감’으로 정해졌다.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씨엠에스랩에서 본인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책임감 있다고 느껴지는 말투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약속 준수, 정확한 피드백, 맑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 하는 것, 모르는 것도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생각했고, 회사 공통의 목표를 내세워주며 주인의식을 갖는 것,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조직이 더 책임감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모두의 의견을 모아 우리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정의해보고 마음을 다잡아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원익로보틱스

01



### 원익로보틱스-클래스팅 업무협약(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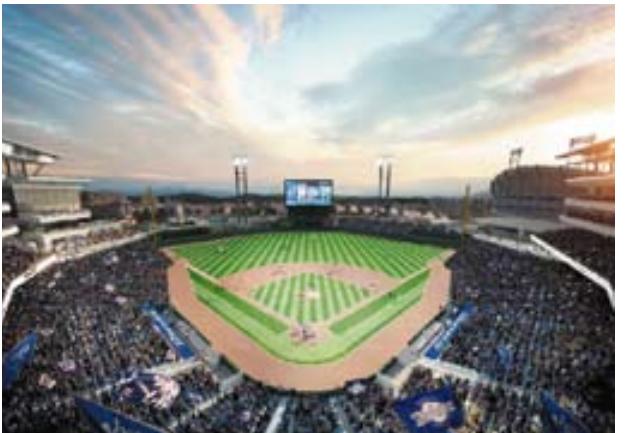
클래스팅, 원익로보틱스와 교육용 AI 서비스로봇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대표 조현구, www.classting.com)은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 원익로보틱스(대표 장경석, www.wonikrobotics.com)와 8일 판교 원익로보틱스 본사에서 교육용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양방향 감정 교류(HRI)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돋는 교육용 AI 서비스로봇을 개발, 올해 말 선보일 계획이다.

클래스팅과 원익로보틱스는 교육용 AI 서비스로봇 사업의 기획, 기술 개발, 마케팅, 영업에 이르는 포괄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선점 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로봇을 통해 공지, 과제, 준비물 등 학교 소식과 학급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의 개별화 교육 서비스 ‘클래스팅 AI’를 이용해 수학, 사회, 과학 등 과목별 맞춤형 문제와 동영상 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 특히 로봇은 비전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얼굴을 인식하고 상호작용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

## 원익로보틱스

02



### 창원NC파크 로봇 애디 도입

창원NC파크에 가면 ‘말하는 로봇’을 만나볼 수 있다. 지능형 안내홍보 로봇 ‘애디 2019’가 주인공이다.

NC 다이노스는 지난달 23일 2019시즌 홈 개막전부터 애디를 공개했다. 애디는 전면과 양 옆 등 3개의 모니터를 통해 경기 및 창원NC파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이다. 경기장 1층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야구 팬들을 찾아간다.

NC 구단 관계자는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안내홍보 로봇은 애디가 세계 최초”라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03



### 자율주행의 핵심, ‘라이다 센서’를 탑재한 원익로보틱스의 애디

최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의 중심이 되는 센서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 라이다 센서는 공간을 삼차원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해 사물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원익로보틱스의 안내로봇 애디에는 비전 센서, 라이다 센서, 뎁스 카메라 등이 접목되어 있는데 그 중 라이다 센서는 초당 수만 개 내지 수십 만개의 레이저를 쏘아 주변 환경과의 상대적 거리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로봇은 획득한 거리정보를 활용해 공간 내에서 로봇 자신의 위치와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현재 송도컨벤시아에서 활동중인 자율주행 안내로봇 애디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로봇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스스로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습니다.

## 하늘물빛정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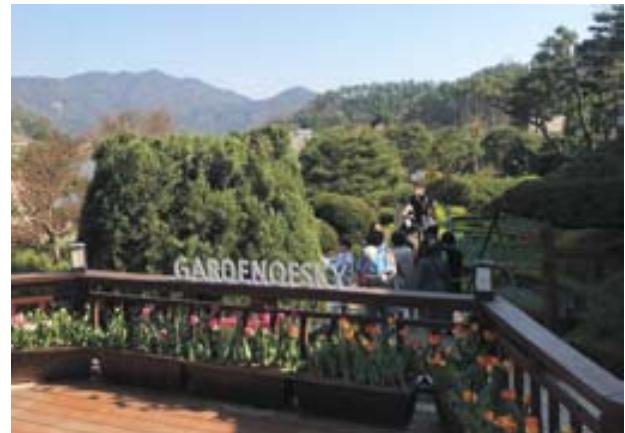


### 볼링동호회 “블링볼링” 첫 모임

하늘물빛정원이 첫 공식 동호회인 볼링 모임 “블링볼링”을 창단했다.

3월 27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월 2회씩 정기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이 동호회를 통해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갈 계획이며 그간 서로에 대해 몰랐던 직원들도 같은 팀을 이루며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볼링 동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를 만들어 회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서로 간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02



### 2019 하늘물빛정원 “드디어봄” 툴립 축제 개최

하늘물빛정원이 지난 4월 “드디어봄” 툴립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매년 봄 진행해오는 이번 툴립 축제는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드디어 봄”이라는 테마 아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툴립을 볼 수 있는 저수지 변 산책로에는 아펠돈, 아이스ون다, 골든퍼레이드, 아베이론, 네그리타 등 10여종의 만송이 툴립으로 가득 채웠고 산책로 외에도 다양한 툴립들을 심어 어디에서도 화려한 툴립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한빛상점”과의 협업을 통해 플리마켓을 열어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 플리마켓의 수익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목적으로 진행해 그 의미가 더욱더 남다른 행사로 마무리 됐다. 툴립이 만연한 소나무 광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어느 때보다 감미롭고 관객 호응이 높았으며, 4월 20일 오후 4시에는 가수 노을의 강균성 씨와 이상곤 씨의 공연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정점을 찍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해 많은 이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해나갈 예정이다.

# Thanks for U

원익인을 위한 선물이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함께 만드는 여러분은 원익인의 주인공입니다.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부서/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 지난호 참여자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 <11명>

보스vs리더 서종욱 (원익큐브)

박찬종

명단공개 강신우 (원익)

김재혁

멘토링 천경민 (원익아이피에스)

고동민

그래잇팀 변경훈 (원익큐엔씨)

서보형

김동현

양서윤

최용자

구루메스시 <4명>

밥한번먹어요 임우석 (원익홀딩스)

김영준 (원익아이피에스)

김진욱 (원익아이피에스)

장승일 (씨엠에스랩)

꽃다발, 장난감

주52시 유진혁 (원익아이피에스)

## 일러스트 액자

공감라운지 최형섭 (원익아이피에스)

## 사진 액자

원익히어로 최광업 (원익아이피에스)

## 응모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정임숙 (원익큐엔씨)

이준구 (원익로보틱스)  
회사 사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보가 재미있으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들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 보도록 할께요~



## 사보 후기

이준구 (원익로보틱스)

회사 사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보가 재미있으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들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 보도록 할께요~

## 리더를 찾아라

우리 회사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00야 말로 멋져!'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신 분, 추천 받으신 분  
스타벅스상품권 각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에피소드를 각색하여 구성합니다.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찾아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우측 5명의 캐릭터 사진을  
휴대폰에서 찍어서 5. 24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 나만의 한정판

나의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 컬렉팅, LP, 파규어, 한정판00 등  
프로 컬렉터를 찾습니다.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제보만 해주시면 사보팀에서 취재하여  
원익덕후 시즌2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 터치미

#바다

바다와 관계되는 어떤 사진이든  
코멘트와 보내주세요.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짧은 코멘트와 구성합니다.

## 행복한 시간

팀워크와 특급칭찬이 온다.

점수따고 싶을때, 고생하는 우리팀을 위해  
신청해주세요.

간식 or 엑티비티: VR 게임방, 방탈출,  
실내양궁, 스크린 야구/골프



W O N I K I N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